

2008 제주 문예연감

# 건축

# 제주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

## 1. 들어가며

새 천년에 들어서 제주는 지역성이나 향토성과 같은 부분적이며 지역적인 건축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 제주4·3사건,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도시의 개념으로 제주가 활동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제주 고유의 모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켜나가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제주건축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시기에 있다. 이는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몫이기도 한 것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제주의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무한한 발전의 무대가 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시작된 제주의 관광지개발이 제주사회뿐만 아니라 제주의 도시와 건축을 크게 변모시켰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시와 함께 추진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도 제주의 도시 건축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제주건축의 전반적인 흐름 정리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건축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현황을 비판적 시각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 제주건축의 흐름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제주는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변하게 되었다는데 5·16군사정변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에 최초로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을 두고 물의 혁명, 길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제주건축의 양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도 대략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에 본격적으로 콘크리트구조물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주건축의 시대별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1970년대 : 제주건축의 지역성·향토성의 태동기

정부는 제주도를 관광지개발에 정책적 중심을 두어, 1972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단을 구성하여 1973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73~1982)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관광지로서 제주개발이 시작되었다.

특히 1974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의 제주도 연두순시에 논의되었던 제주시의 신제주 건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정부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농촌지역의 새마을운동의 지붕개량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해 제주의 주거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그러나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당시의 분위기와는 달리 지역성에 대한 건축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주건축의 지역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1975년 이후 당시 언론의 사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설을 통해 각계에서 제주건축에 대한 강한 애정과 관심을 이끌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주성, 지역성, 향토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사회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관광지 개발붐은 제주지역의 낙후성 탈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개발 그 자체가 도민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의 자본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었기 때문에 계층간의 괴리감과 함께 건축의 지역성·향토성 상실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안고 있었다.

### 나. 1980년대 : 제주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의 모색기

1980년대에는 대형건축물이 비교적 많이 건축되었고, 1970년대의 무비관적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하여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역성 · 향토성에 대한 자각은 1982년 2월에 정규대학 출신의 건축사들이 한국건축사협회 제주지회 결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건축문화를 주도하는 건축 집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행정기관에서도 지역적 건축문화의 형성을 위한 작업으로 건축미관 심의를 실시하고, 지역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수미관주택상(1981), 제주특유주택설계공모전(1982~1984), 제주도 향토성 건축 보급방안연구(1987)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민관(民官)의 지역적 건축운동은 전통적인 제주의 건축 재료인 현무암, 송이의 사용을 통한 지역성 표출을 위한 실험적 모색이 두드러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 다. 1990년대 : 제주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의 전개기

1990년대 특징 중의 하나가 건축을 문화적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 일환으로 제주건축문화대상, 건축문화상, 주거건축 표준도면의 공모전 등이 시행되었다. 입상한 작품들의 성향을 보면, 제주의 지역적 전통요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나름대로 건축 언어성을 구사하고자 하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으며, 건축평면에도 전통적인 공간구성기법을 도입한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전형적인 제주건축의 형태적 언어성 표현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건축의 보급을 위해 실시된 이들 공모전 작품의 선정기준은 ① 도시경관으로써 건축, ② 미래지향적 건축, ③ 제주적 삶과 표현이 갖든 건축에 두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원칙 설정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전반적인 작품 성향을 보면 지역적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다양한 건축언어요소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송이 벽돌 등 다양한 마감 재료에 있어서도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제주건축의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 라. 2000년대 : 제주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의 정체기(停滯期)

2000년대에 들어 제주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크게 변하게 한 큰 계기는 집합주택단



지의 조성과 그린벨트지역의 해체, 규제완화에 따른 고층사무소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집합주택단지의 조성은 주택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면서 고층화, 고밀도의 주거건축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시 연동지구와 노형지구의 집합주택단지를 들 수 있다. 이들 대규모 단지의 건설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제주의 도시경관의 개성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건축의 변화와 특징은 도시적 차원의 건축물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과거 주어진 부지에서 다루어져 왔던 스케일이 아니라 도시적 맥락으로 건축물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도 있으나 도시팽창에 따른 건축물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커졌고, 새로운 도시기반정비의 필요성, 그리고 건축이 가진 문화적 성격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도시적 측면에서의 건축적 탐색’ 혹은 ‘도시적 맥락에서의 건축 탐색’ 등 이른바 도시건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3. 2007년 제주건축계의 흐름과 평가

#### 가. 건축공간에서 도시공간으로 확대

- 공공디자인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평가-

2007년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실시와 함께 다양한 건축행정구조도 크게 변하였다. 특별자치도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원적 행정체제로 변환되었고 건축위원회의 구성이 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광역 차원에서 폭넓게 탄력적으로 건축행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도정은 도시건축정책의 기획과 입안에 집중하여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축행정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과정으로써 조직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비판도 없지는 않다.

건축행정구조의 급격한 변화와는 달리 제주건축계의 이슈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프로젝트, 건축관련 단체의 건축문화 활동, 출판활동에 있어서

비교적 다양하고 폭넓게 건축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만한 점은 단순히 건축적 범위의 논의와 활동이 아니라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 도시건축의 지역성과 문화성 결여, 지역사회의 정주,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도시적 차원의 건축활동 영역이 폭넓어졌다는(혹은 넓히려 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건축이 갖는 사회성과 공공성, 그리고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조금씩 수용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상설계공모전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던 2000년대 초와는 달리 2007년은 주목받을 만한 현상설계공모전이 많이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2006년 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되었던 제주현대미술관이 개관되어 제주현대미술의 활동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전시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제주문화적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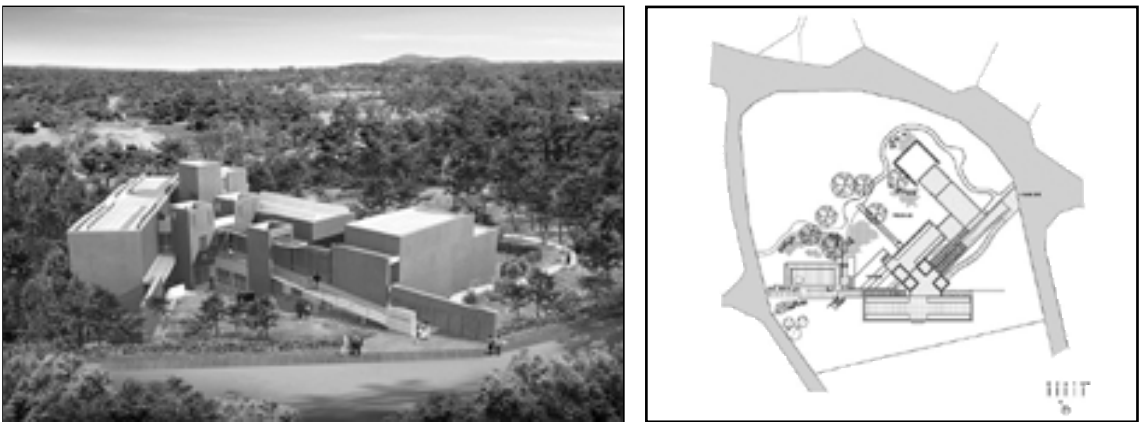


그림 1. 2007년 개관한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의 조감도와 배치도

2007년은 현상설계공모전을 통한 지역건축의 새로운 해석과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적었던 반면, 도시건축행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건축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지식경제부의 「공공디자인개선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국토해양부의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공간의 개선을 다루는 도시·건축 환경개선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분야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건축의 본질적인 공간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건축사신문, 「공공디자인 건축사 주도로 진행되어야」, 2008. 3. 7. 참조)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도시적 차원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조직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 주체는 제대로 된 도시건축전문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인 건축 관련단체에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노력이나 참여의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한편 침체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생활공간의 개선을 통해 정주(定住)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사업이 여러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사업은 도시 건축적인 차원의 개선 방향 없이 단순히 국지적인 시각부분의 개선사업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은 시각적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 생활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도로와 건축물의 공간적 연결과 깊이를 갖게 하는 도시건축적 수법이 요구되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요소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때 진정한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것이다.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역시 그러하다.

행정분야와는 별도로 한라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행정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그림 2). 각계 분야의 전문가의 자발적 활동을 기반으로 추진된 한라일보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심의 공동화와 인구집중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 그리고 생산경제의 어려움과 생활환경의 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이라는 이원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있는 언론사의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하여 고민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 개편에서 마을만들기팀이 조직되어 행정적인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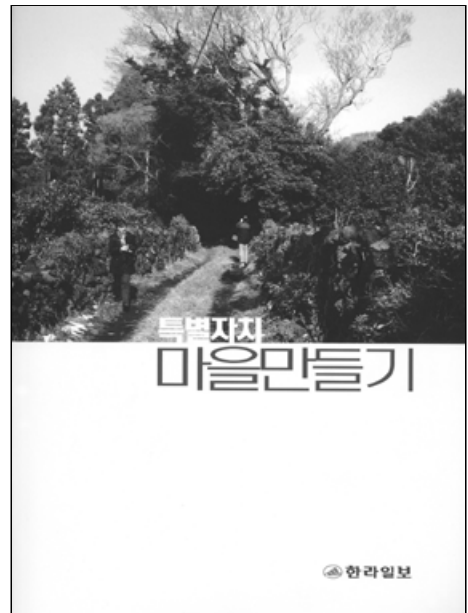


그림 2. 한라일보 마을만들기 결과보고서

## 나. 2007 제주건축문화축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3단체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축문화축제는(11. 15.~11. 17.) 전시회와 심포지움, 건축문화대상, 건축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건축문화축제의 심포지움에서 다루었던 주제 역시 「도시 공공디자인의 현재와 미래」여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이 제주사회에서도 관심거리임을 보여주었다(그림 3). 심포지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팀장의 발표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팀장으로서 국가 공공디자인의 문제점을 정리·발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의 도시공간속에서 시민들과 오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었던 거리환경개선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는 현재 제주사회에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림 3. 제주한라대학 한라아트홀에서 개최되었던 2007 제주건축문화축제 심포지움 장면

2007 건축문화대상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지역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제주건축을 건축가가 땅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과 건축적 가치관, 철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우리들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들 작품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점이다. 2007 건축문화대상에서는 준공건축물, 계획건축

물, 건축사진으로 나뉘어 대상이 결정되었다. 준공건축물의 주거 부문에서는 해심헌(海心軒)(설계 : 서현, 김상언)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었고(그림 4), 화북동주택(설계 : 임성추), 남원읍 자이현(설계 : 선은수)이 본상으로 선정되었다. 비주거부문에서는 제주현대미술관(설계 : 김석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교육회관(설계 : 고성천)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상을 받은 해심헌은 건축가가 가족에 대한 이해와 땅에 대한 고려를 수용하면서 변화 무상한 어린이들의 상상과 생활,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공간계획 되었다는 점, 독특한 질감을 갖는 제주석을 실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제주현대미술관 역시 지형적 조건을 이용한 배치관계와 내부와 외부공간의 연결성, 제주석을 실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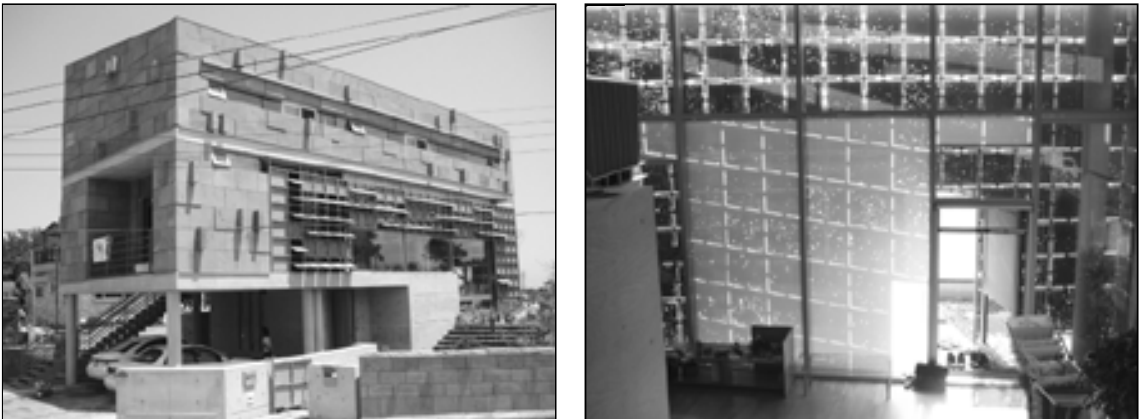


그림 4. 제주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해심헌의 외관 및 내부 모습

#### 다. 세계화와 지역화를 통한 건축가의 역할 모색 : 한·일 건축심포지움의 의미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의 국제세미나(2007. 12. 27.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소극장) 「세계화와 지역화,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건축가를 초대하여 사회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지역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건축가는 어떠한 태도의 건축철학과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제주건축의 지역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지방화와 지방자치의 중요성, 그리고 제주자연경관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문화디자인으로써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이 세미나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번 한·일 건축심포지움에서는 세계화되어 가는 서울과 동

경, 그리고 지역의 자치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제주와 오사카라는 지역적 구분과 건축가의 활동 영역으로 나뉘어 2개의 주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건축가의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건축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그림 5).

세미나 참여 건축가는 한국측 2명, 일본측 2명 총 4명의 건축가가 참여하였으며, 한국측 참여 건축가는 김인철(건축가, 중앙대학교 교수, 아르키움 고문), 김석윤(김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일본측 참여 건축가는 엔도타카오(遠藤剛生, 遠藤剛生建築設計事務所 대표 겸 神戸藝術大學 建築學科 교수), 코지마 카즈히로(小嶋一浩, 東京理科大学 教授, 설계사무소 CAat 공동대표)가 참여하였다.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건축심포지움의 모습

## 라. 문화시설의 BTL사업추진과 비판적 견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그림 6)과 제주종합문화센터(그림 7), 제주대학교 기숙사 등이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BTL방식이란 민간자본으로 공동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임대료 등을 통해 시설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BTL 사업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BTL방식은 산업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고 또한 시민의 문화적 인식이 높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데다 아직 산업자본의 축적이 성숙하지도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BTL에 대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종합투자계획과 지방중소업체 보호제도가 상충, 사업진척이 늦어지는 등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야 할 문화의 인프라구축, 문화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문화라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상업성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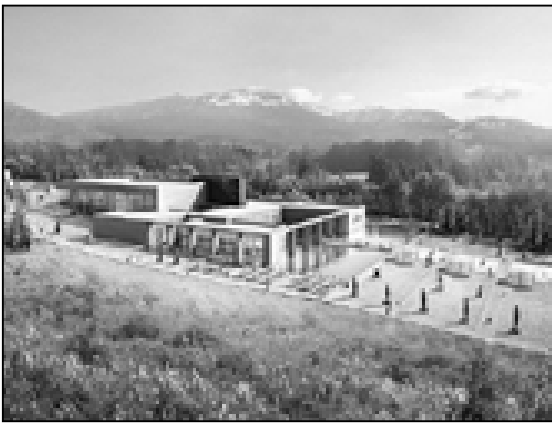


그림 6. 제주도립미술관 조감도



그림 7. 제주종합문화센터 조감도

따라서 BTL사업에 의한 문화시설의 확충사업은 상업자본의 특성상 더 이상 문화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제주에서 추진되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과 제주종합문화센터와 같은 BTL사업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제주 산업자본의 축적이 성숙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부분이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불확실하고 성숙하지 못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하고 싶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민속관광타운이다. 건축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된 신산공원내의 제주민속관광타운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관광시설로 활용되더니 지금은 방치된 채 일부 전시시설의 기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마. 제주문화포럼의 인문학으로 건축이야기 -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

제주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활발한 시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가 적지는 않으나 도시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집단 중의 하나가 <제주문화포럼>이다.

제주문화포럼에서는 건축을 공공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우리들의 삶의 공간으로 수용하기 위해 「인문학으로 건축이야기-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과 건축의 관계성과 이를 통해 인간이 건축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소박한 대답이 되리라 생각한다. 건축이란 삶의 공간, 생활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장소(공간)를 만들기 위해 바닥과 벽과 천정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맞도록 만든(형태) 결과물이며, 이것이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건축의 본질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대건축은 공간적 미학보다는 형태적 미학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에 만족하는 경향이 짙다. 공간 속에 스며든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가치관,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읽어 들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시민단체가 시도한 인문학적 이해와 건축가치의 수용 노력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바. 제주도시건축의 정리와 패러다임 모색

척박한 제주의 환경만큼이나 제주의 도시건축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자의적인 요인도 있고 타의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특히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으로 제주의 도시건축의 중요성과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제주도시건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거니와 과거의 연구 축적물에 대한 평가와 활용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에는 제주도시건축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정리한 2권의 서적이 출간되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외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제주대학교 출판부),



『12인 12색 새롭게 쓰는 제주 도시건축이야기』(제주대학교 출판부)는 2005년 출간된 김태일 교수의 『제주건축의 맥』에 이은 세 번째 제주도시건축에 대한 연구출판물이다.



그림 8.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김태일 외, 제주대학교 출판부) 표지



그림 9. 「12인12색 제주도시건축이야기」(김태일 외, 제주대학교 출판부) 표지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은 김태일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거나 지도를 받아 대학원 논문을 작성하였던 사람들의 글을 모아 정리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림 8). 다루는 주제의 폭이 도시분야에서 건축분야,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학교시설에서부터 고령자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21세기 제주고유의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주도시건축의 형태적 미학보다는 공간적 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현대건축물로의 응용과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건축에 관한 글, 특히 도시에 대한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에서, 도시건축이라는 시각에서 제주의 도시와 건축이 어떠한 문제에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12인 12색 새롭게 쓰는 제주 도시건축이야기』는 『제주건축의 맥』,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과는 달리 다양한 시각에서 제주의 도시건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단순히 건축분야의 종사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혹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보다는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과 가치관을 글로 정리된 점이 특징이다(그림 9). 집필진의 구성도 다양하여 건축가와 교수뿐만 아니라, 방송작가, 언론인, 사진작가, 일본 건축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제주 도시건축이 가야 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4. 맺으며

지역 고유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가장 잘 표출되고 있는 곳이 제주도이다. 과거의 도시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어렵게 개발되어 왔으며, 제한된 재료와 동일한 건축양식 속에서 개인에 의하여 형성된 다양성이 도시전체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름대로의 도시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주를 본다면, 제주의 도시는 짧은 기간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신속한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건축 재료와 풍부한 시공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습은 획일화되고 무표정하며, 삭막한 회색빛 도시화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7년은 현상설계공모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활발한 건축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볼 때, 경관문제, 친환경조성문제, 공공디자인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제주도시건축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미비하였던 점도 사실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이 살아야 하고 건축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건축을 문화적 차원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예술적인 안목이 있는 시민들을 많이 육성하여야 하고 건축사와 도시건축행정공무원은 건축을 만드는 철학과 소명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제주의 도시건축, 즉 도시적 맥락에서 건축의 모습에 대한 비판과 발전지향적인 시각을 정리해 봄으로써 한층 성숙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그려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글 / 김 태 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08 제주 문예연감

# 예 약

## 2007년 제주의 기악

### 1. 들어가는 글

제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이다.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호(號)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어 2005년 2월 세계평화의 섬,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거듭 나면서 제주의 문화예술계도 급발전을 하게 되었다. 1996년 개최한 제주국제관악제는 2007년 12회까지 계속되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2001년에 시작된 탐라전국합창축제는 2008년부터 국제합창축제로 거듭나면서 세계 속의 음악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 제주도에서 음악활동이 시작된 이래 1980년까지는 음악의 불모지로 알려져 왔는데 1981년 제주대학교 음악교육학과의 출범으로 새로운 음악활동의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도내의 연주단체들을 살펴보면 실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음악단체들이 자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7년도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 서귀포 관악단과 서귀포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많은 기획, 특별연주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연주단체들도 나름대로 정기공연과 다양한 기획 연주들이 있었다.

먼저 기악 분야를 소개하고 이어서 성악 분야, 음악축제 분야 순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07년 한 해 동안 활동하였던 도내 연주단체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악 분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기악연주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립 연주 단체

제주도에는 많은 연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 관에서 운영하는 연주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이하 제주교향악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합주단(이하 서귀포관악합주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이하 제주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이하 서귀포합창단)이 있다.

#### 1) 제주교향악단

##### 가) 제주교향악단 소개

제주교향악단은 제주음악을 대표하는 공연 단체로 제주도의 예술적 자존심이라 할 수 있다.

제주교향악단은 1985년 故 이선문 초대지휘자에 의해 창단되었다. 그는 음악의 불모지인 제주도에 제주음악의 희망이라는 싹을 심었다. 1982년 도내 최초의 기성 연주 단체인 탐라합주단을 창단하여 지역의 젊은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며 관과의 꾸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1985년 제주시립관악단을 창단하여 1987년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성장하였다. 1982년 탄생한 탐라합주단이 현재 제주도향의 모체였다.

故 이선문 초대지휘자는 1989년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뮤직페스티벌에서 현지 심포니를 지휘, 한국적인 서곡을 연주해 대한민국 기상을 떨쳤다. 이듬해 2월에는 제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향악축제 무대에 올라 제주음악사에 일획을 그었다. 그는 살아 생전에 200여 회 음악회를 기획·지휘하였다. 음악 분야에서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하였고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향악단을 이끌어오다가 1997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초대 지휘자의 바톤을 이어서 현재 이동호 지휘자가 1998년 부임하면서 제주교향악단은 큰 변화를 겪었다. 제2대 이동호 상임지휘자가 부임한 이래 제주교향악단은 창작 오페라 백록담, 제주국제관악제, 제주의 민요 채보 녹음, 초·중·고 교가 CD제작 보급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각종 공연을 통해 제주 음악계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국내외 평가를 받았다.

한편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는 제주교향악단이 과다한 연주회 일정에 시달려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한라대학 김준곤 겸임교수는(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제25호)에서 “제주시향의 지난해 공연 횟수는 모두 41회로, 평균 9일에 한 번 공연한 셈”이라며 “이렇게 많은 공연을 갖다 보니 하루 연습해 공연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 제주교향악단 연주 실적

제주교향악단의 2007년 연주회 실적은 <표 1>과 같다.

<표 1> 제주교향악단 2007년 연주 실적

No	일 자	장 소	연주회 (행사) 명	지 휘
1	1/10(수)	제주국제공항	제주시립교향악단 초청 제9회 아름다운 사람들 신년음악회	이동호
2	1/19(금)	문예회관	제주시립교향악단 신인음악회	이동호
3	2/13(화)	문예회관	제68회 정기연주회	이동호
4	2/26(월)	문예회관	특별음악회 '새내기를 위한 봄의 교향악'	임동수(객원)
5	3/8(목)	문예회관	신춘음악회 '제주기 애랑'	이동호
6	4/4(수)	제주해변공연장	4·3 평화음악회	이동호
7	4/13(금)	문예회관	제69회 정기연주회	이동호
8	4/21(토)	서울 예술의전당	2007 교향악축제	이동호
9	5/3(목)	문예회관	특별음악회 '어린이 음악회'	정운선
10	5/18(금)	문예회관	玄谷 梁重海 詩에 의한 가곡의 밤	이동호
11	5/31(목)	문예회관	11시 콘서트	이동호
12	6/9(토) 6/10(일)	제주돌문화공원 야외무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제주 오페라 '백록담'	이동호
13	6/20(수)	문예회관	청소년 협주곡의 밤	정운선
14	6/29(금)	문예회관	제70회 정기연주회	이동호
15	7/18(수)	고산초등학교	한경면 우리 동네 사랑 음악회	이동호
16	7/20(금)	제주해변공연장	해변축제 개막공연	이동호
17	8/23(목)	문예회관	제71회 정기연주회	알폰소사우라스
18	8/26(일)	용연특설무대	용연 선상음악회	이동호
19	8/30(목)	노형 부영1차	노형아파트 주민을 위한 우리 동네 사랑 음악회	이동호

No	일 자	장 소	연주회(행사)명	지 회
20	9/4(화)	문예회관	CJ와 함께하는 영화 속 클래식 음악	이동호
21	9/7(금)	신노형 제1근린공원	노형 주민을 위한 우리 동네 사랑 음악회	정운선
22	9/12(수)	문예회관	특별음악회 '가을의 세레나데'	신현길(객원)
23	9/19(수)	한라아트홀	한국방송통신대학 개교 35주년 가족사랑 음악회	이동호
24	10/11(목)	문예회관	제72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연주 중 최종회	이동호
25	10/25(목)	문예회관	11시 콘서트	이동호
26	11/27(화)	문예회관	故 이선문 초대 지휘자 10주기 추모음악회	이동호
27	12/14(금)	문예회관	제73회 정기연주회	정운선
28	12/21(금)	문예회관	송년음악회	이동호

#### 다) 제주교향악단의 당면 과제

제주교향악단은 연주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연주회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내 민간 연주 단체는 트리오 단체가 2개 단체, 앙상블 단체가 15개 단체, 오케스트라가 4개 단체, 관악합주단이 3개 단체, 청소년 연주 단체가 8개 단체로 총 3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32개의 음악연주단체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이들 각 단체들이 제대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 일이다. 찾아가는 음악회 정도는 민간 연주 단체들의 몫으로 남겨주고 메인 무대에서 공연에 충실하는 것이 제주교향악단의 품격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실상 제주교향악단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단원들도 야외 연주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한다. 제주의 해풍이 그들의 보물과도 같은 악기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들은 별도로 저렴한 가격의 야외연주용 악기를 장만하기도 한다. 교향악단에서 현악기의 역할과 비중은 대단하다. 현악기들은 울림이 좋아야 하며 좋은 울림을 가진 악기는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원들에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야외 이동연주회로 단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단원들의 연주력 향상이다. 제주교향악단에서는 매년 말이면 단원 평정을 하고 있다. 실기 평정은 교향악단 전체의 연주력 향상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형식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원들이 한 해에 한 번은 전문 공연장에서 교향악단과 협주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독주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통하



여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측정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단원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연주력 향상을 위하여 평소에 좀더 체계적인 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준비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단원들의 급료를 가지고 하루종일 연습에 전념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교향악단원들의 급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주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휘자의 선임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국내의 교향악단들은 4~5년마다 지휘자를 새로이 선임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였는가? 아무리 맑은 물이라고 하여도 오랜 시간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계속 고여 있으면 그 물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에 예로부터 그러한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현재 이동호 상임지휘자는 11년째 교향악단의 지휘를 하고 있다. 그만큼 음악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단원들에게도 있다. 지휘자의 훌륭한 지도도 단원들에게는 11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는 양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항상 변함없는 눈빛과 음악의 패턴은 단원들이 적응이 너무도 잘되어 충격과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제주합창단의 경우를 보면 지휘자가 벌써 7대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교향악단인 경우는 2대임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향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2) 서귀포관악합주단

### 가) 서귀포관악합주단 소개

서귀포관악합주단은 서귀포 지역에 최초로 전문 기악 연주시대의 막을 연 양경식 지휘자에 의해 1997년 3월 창단하였다. 이후 제주도의 새로운 연주 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였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으로서 서귀포시립관악단 창단을 정책으로 결정(1997. 10. 13.)하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해 서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제정(서귀포시조례 제914호, 1997. 12. 31.)하고 동 시행규칙을 공포(1997. 12. 31.)하였으며,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1998. 1. 10.)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술단의 운영 방향을 협의(1998. 1. 17.)한 후 상임지휘자를 위촉(1998. 1. 20.)하여 28명의 단원 구성을 완료하고 동 예술단 복무규정을 발령(1998. 2. 2.)하여 창

단식 및 기념연주회를 개최(1998. 2. 6)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관악단인 서귀포시립관악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서귀포시립관악단의 탄생은 우리나라 관악 10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었으며,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시립 관악연주단체로서 관악의 특성을 살린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켜 줌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자랑스러운 명물로서 연주단체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의 중소도시에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서귀포관악단은 국내·외 초청공연과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관악 전문 연주 단체로서 제주관악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 나) 서귀포관악합주단 연주 실적

서귀포관악합주단의 2007년도 연주 실적은 <표 2>와 같다.

<표 2> 서귀포관악합주단 2007년 연주 실적

No	일 자	장 소	연주회(행사)명	지 휘
1	3. 8.	서귀포학생문화원	제23회 정기연주회	양경식
2	5. 21.	서귀포김정문화회관	제24회 정기연주회	양경식
3	5. 22.	문예회관	제24회 정기연주회	양경식
4	7. 28.	원주따뚜공연장	'따뚜음악편지' 초청공연	양경식
5	8. 11.	서귀포휴양림	관광지음악회	양경식
6	8. 13.	노형 기적의 공원	제주국제관악제 초청공연	양경식
7	10. 23.	서귀포김정문화회관	제25회 정기연주회	양경식
8	10. 24.	문예회관	제25회 정기연주회	양경식

#### 다) 서귀포관악단의 당면 과제

서귀포관악단의 제1번 과제는 단원의 구성이다. 2007년도의 서귀포관악단의 단원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서귀포관악단 단원 구성

파트 별	구 분	인 원	비 고
지휘자	비상임	1	상 임 : 22 비상임 : 18
오보에	상 임	1	
	비상임	1	
플루트	상 임	2	
	비상임	1	
클라리넷	상 임	5	
	비상임	2	
알토 색소폰	상 임	1	
	비상임	1	
테너 색소폰	상 임	1	
바 순	비상임	0	
트럼펫	상 임	4	
	비상임	1	
호 른	상 임	2	
	비상임	2	
T/B트롬본	상 임	2	
	비상임	2	
유포늄	상 임	1	
	비상임	1	
튜 바	상 임	1	
	비상임	1	
타악기	비상임	4	
피아노	비상임	1	
편 곡	상 임	1	

단원의 구성을 보면 상임 단원이 22명, 비상임 단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으며 바순 파트는 아예 한 명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휘자인 경우 비상임 체제로 되어 있어 상임단원들이 출근하는 오전 시간에 합주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으로 명칭이 바뀐 만큼 그 이름에 걸맞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상임지휘자 체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상임단원의 경우도 그 수를 좀더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상임단원의 비율이 55%, 비상임 단원이 45%로 전문 연주 단체로 활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서귀포관악단 운영을 책임

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서귀포시는 당면과제를 직시하고 발빠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시권내에 있는 제주교향악단은 비상임 단원이 없다. 관에서 운영하는 전문 예술단체가 비상임 단원에 의존하여 연주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귀포권내에 있는 대표적인 예술단체가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똑같이 편성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지휘자 운영체제와 상임단원 85% 이상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나. 민간 연주단체

제주도내 민간 연주 단체는 트리오단체가 2개 단체, 앙상블 단체가 15개 단체, 오케스트라가 4개 단체, 관악합주단이 3개 단체, 청소년 연주 단체가 8개 단체로 총 3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1) 트리오 단체

#### 베가트리오

베가트리오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인의 연주자로 구성되었으며, 2006 제주해변축제와 2006 제주예술의 향연, 2006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7월 23일 하례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졌다.

#### 제주피아노트리오

2001년 5회 정기연주회 이후 5년만인 2006년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2월 28일에 「10년전의 일기를 꺼내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대극장(이하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공연을 가졌다.

### 2) 앙상블 단체

#### 루체 기타앙상블

3월 4일 제2회 정기연주회(한라아트홀 대극장)

모던앙상블

모던앙상블은 클래식, 재즈, 영화음악, 뉴에이지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접목해 독창적인 공연을 기획하는 실내악 단체로 2005년말 창단한 후 2007년 2월 28일에 모던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브라스앙상블 오름

2003년 서귀포의 전문 관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하였으며, 창단 이후 2회의 특별 연주회와 2회의 초청연주에 참가하였으며 2007년 연주실적은 없다.

솔로이스츠

제주교향악단에 재직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선경, 이경선, 윤정혜 씨와 첼리스트 예지영씨로 구성된 솔로이스츠 창단연주회가 2007년 12월 18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아마빌레 플루트 앙상블

제주대학교 음악학과에서 플루트를 전공한 이들의 연주모임으로 2007년 5월 27일 창단하였다.

원타악기앙상블

원타악기앙상블은 제주교향악단에 타악기 주자인 문영혜 선생의 문하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타악기 연주를 즐기는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12월 7일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제주브라스앙상블

1995년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되어진 실내악 연주 단체로 정기연주회와 이동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12월 29일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제주앙상블 드림

2006년 10월 1일 창단연주회를 가진 이후 2007년 10월 5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 □ 제주양상블 준(JUNE)

1994년 11월에 창단된 제주양상블 준의 2007년 5월 17일에 제13회 정기연주회를 문예회관에서 가졌다.

#### □ 제주클라리넷양상블

2007년 4월 7일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신춘음악회를 실시하였고, 10월 2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 □ 제주타악기양상블

제주타악기양상블은 남다른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새로운 창작품들을 공연하고 있다. 기존 타악 양상블과는 차별화를 두고 여러 가지 공연문화의 범람에 식상한 문화 소비자들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공연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특히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제주타악기양상블만의 퍼포먼스는 많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2007년 찾아가는 음악회로 7월 8일 서귀포 제남보육원, 7월 11일 한림분재예술원, 7월 29일 성산읍 미천굴 야외공연장, 8월 3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0월 14일 함덕 아가의집 방문음악회를 하였으며, 제주타악기양상블과 함께 하는 타악 Concert를 8월 31일 해변공연장과 11월 18일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하였으며 11월 18일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연변동포를 위한 2007 한민족음악회에도 참가하였다.

#### □ 제주플루트 카론 앙상블

Charon은 명왕성의 한 위성으로 그리스어로 기쁨을 의미한다. 카론 앙상블은 지난 2005년 5월 31일 탄생하였으며 플루트가 좋아 모인 순수한 아마추어 앙상블로서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원 간의 돈독해진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에도 일조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 문예회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12월 1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100인의 플루트연주회에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와 공동으로 연주를 하였다.

#### □ 제주플루티스트 앙상블

2001년 6월에 창단된 제주플루트앙상블이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로 개명하였다. 2007년 11월 29일 제8회 정기연주회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가졌으며, 12월 15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놀이·숲·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 창단연주회가 2007년 11월 5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프라임타악기앙상블

2006년 2월에 창단연주회를 가졌으며 2007년 3월 3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 10월 14일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1월 27일 제주의료원에서 사랑나눔 콘서트를 가진바 있으며, 3월 24일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프라임타악기앙상블 특별연주회를 가졌다.

### 3) 오케스트라 단체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는 현존하는 제주도의 민간 연주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7년 4월 24일 제37회 정기연주회를, 5월 29일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12월 1일 제38회 정기연주회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였으며, 5월 3일 고산초등학교, 5월 11일 금악초등학교와 더덕분교, 10월 5일 노형 e-편한세상에서 방문음악회를 가졌다.

한라챔버오케스트라

한라챔버오케스트라는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의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제주의 문화관광도시 선도에 앞장서며, 도내의 잉여 음악인을 수용하여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교육을 선도한다는 취지 아래 2001년 결성되었다. 2001 제주오페라단과 리콜레토, 2007 서울오페라 앙상블과 리콜레토 아시아버전 뉴오페라, 제주국립박물관 갤러리음악회를 실시하였으며 해마다 장애인을 위한 자선송년음악회,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와 겨울 음악캠프 등 도내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최초 민간 오케스트라이다.

2007년 연주 실적은 <표 4>와 같다.

〈표 4〉 한라첼버오케스트라 2007년 연주 실적

No	일 자	연 주 회 명	장 소
1	4. 7.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송당초등학교
2	5. 10.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선흘초등학교
3	6. 16.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남원중학교
4	6. 30.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한림고등학교
5	8. 28.~29.	뉴오페라 리콜레토 아시아 버전	문예회관 대극장
6	11. 5.	제6회 정기연주회 왈츠의 밤	한라아트홀 대극장

## □ 제주신포니에타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로 활동 중인 김형삼 씨를 음악 감독으로 각 파트의 전문 연주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이 땅에 널리 알리자는 ‘하늘과 바다를 울리는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초청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및 많은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다.

제주신포니에타의 2007년 연주실적은 〈표 5〉와 같다.

〈표 5〉 제주신포니에타 2007년 연주 실적

No	일 자	연 주 회 명	장 소
1	4. 8.	봄의왈츠(기획연주회)	문예회관
2	5. 10.	찾아가는 음악회	조천초등학교, 평안요양원
3	11. 3.	찾아가는 음악회	노래사랑봉사대
4	11. 6.	바로크이야기(시대별 연주씨리즈1)	문예회관
5	12. 21.	찾아가는 음악회	예지원

## □ 제주팝스오케스트라

2000년에 창단되어 활동을 하다가 2006년 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하였다. 정기공연과 관광지 순회음악회,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10일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 10월 20일 한라수목원, 11월 3일 구좌읍 동녘도서관, 11월 10일 함덕 혜정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였다.



4) 관악 합주 단체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는 제주대학교 음악학과의 관악 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2007년 5월 1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5월 22일 제주대학교에서 2007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제주윈드오케스트라

1999년 제주페스티벌밴드로 창단되어 활동하다가 2005년 개명하였다. 2007년 3월 23일 제5회 정기연주회를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인 허대식 교수의 지휘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가졌으며 7월 24일 2007 제주하계포럼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가진 바 있다. 또한 12월 6일 윈드오케스트라 제2회 제주민요집 발간음악회를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하였다.

한라윈드앙상블

1993년 6월에 창단된 제주 유일이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밴드이며 2007년 연주실적은 <표 6>과 같다.

<표 6> 한라윈드앙상블 2007년 연주실적

No	일 자	연 주 회 명	장 소	지 휘
1	2. 24.	제36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김승택 / 유성철
2	5. 26.	제3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김승택
3	9. 15.	추억의 팝스 콘서트	문예회관 대극장	키즈 카즈야 / 김승택
4	12. 15.	제38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김승택
5	12. 16.	눈 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	문예회관 소극장	김승택

5) 2007년에 창단한 연주단체

제주솔로이스츠

제주교향악단에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선경, 이경선, 윤정혜 씨와 첼리스트 예지영씨로 구성된 솔로이스츠 창단연주회가 2007년 12월 18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 창단연주회가 2007년 11월 5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아마빌레 플루트 앙상블

제주대학교 음악학과에서 플루트를 전공한 이들의 연주모임으로 2007년 5월 27일 창단되었다.

## 다. 2007년 기타 단체에서 개최한 연주회

### 1) 전문 예술기획사가 개최한 연주회 실적

공연예술기획 아티스트

10월 8일 스승 임자향과 아름다운 동행(문예회관 대극장)

삼다아이

1월 16일 대니정 쇼케이스(한라아트홀 대극장)

예인 기술기획

4월 14일 제6회 매일 클래식(문예회관 대극장)

### 2) 기업체에서 개최한 연주회 실적

제주신라호텔

1월 29일~2월 3일 금난새의 2007 제주뮤직아일랜드 페스티벌(신라호텔)

제주일본국총영사관

5월 23일 마쓰무라 북공연(한라아트홀 대극장)

한국전력

5월 22일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사랑 콘서트(한라아트홀 대극장)

CJ 문화재단

9월 4일 CJ와 함께 하는 영화속 클래식 음악 (문예회관 대극장)

3) 언론사가 개최한 연주회 실적

CBS 제주방송

12월 13일 2007 Love is 캐롤의 밤 (문예회관 대극장)

KBS 제주방송총국

1월 17일 용재오닐과 이윤수의 겨울소나타(한라아트홀 대극장)

3월 14일 이정식 쿼르텟의 '언제나 지금처럼' (한라아트홀 대극장)

4월 18일 양성언 트리오 4월의 꿈(한라아트홀 대극장)

6월 13일 이성주 트리오 '그녀들만의 이야기' (한라아트홀 대극장)

7월 18일 피아니스트 김원미의 '볼로냐에서 온 편지' (한라아트홀 대극장)

8월 22일 나윤선의 '썸머레인' (한라아트홀 대극장)

10월 31일 로스로메로스 Falling in love(한라아트홀 대극장)

11월 28일 KBS 제주특별음악회(한라아트홀 대극장)

KCTV 제주방송

10월 13일 신장장애인돕기 3색 콘서트(한라아트홀 대극장)

4) 기타 협회 및 학회에서 개최한 연주회

사물놀이 하나아트

2007년 12월 23일~25일 퓨전타악연주회(문예회관 소극장)

소리어울림

5월 21일 소리어울림 자선 콘서트(문예회관 대극장)

자작나무숲

4월 14일 어린이를 위한 작은음악회(자작나무숲)

- 4월 28일 자작나무숲의 어른들을 위한 작은음악회(자작나무숲)  
 5월 26일 제1회 자작나무숲 환경음악회(한라수목원)  
 7월 23일 자작나무숲의 어른들을 위한 작은음악회(자작나무숲)
- 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  
 5월 19일 제10회 우리문화자강운동 초청 공연(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8월 28일 제8회 정기연주회(문예회관 대극장)
- 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9월 18일 송화은 초청연주회(문예회관 대극장)  
 10월 5일 피아니스트 고상희 초청연주회(문예회관 대극장)
- 제주피아노학회  
 9월 10일 박순방-임자향 피아노 듀오콘서트(문예회관 대극장)  
 10월 16일 제주피아노학회 연주회(한라아트홀 대극장)
- 한국기타협회 제주지회  
 5월 11일 기타리스트 조상구 초청연주회(한라아트홀 대극장)
-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  
 3월 22일 신춘음악회(서귀포 김정문화회관)  
 9월 1일 2007 가을로 가는 음악여행(서귀포천지연 야외공연장)  
 11월 30일 팝스콘서트(서귀포 김정문화회관)
-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8월 2일 제주청소년음악회 (문예회관 대극장)  
 12월 19일~20일 2007 신인음악회

## 라. 청소년 연주 단체

### 1) 오케스트라 단체

#### □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음악의 꿈나무를 육성하고 청소년 음악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제주지역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공연문화 발전을 위해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장홍용 교수를 중심으로 1989년 창단됐다. 200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로서 법인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청소년 오케스트라로서는 역시 최초로 2005년에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받았다. 정기연주회와 청소년음악회를 비롯해 해마다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전문 강사진을 초청, 음악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연 4회의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우수 단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주 토·일요일 정기 연습과 함께 음악감상 등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고전음악 감상회, 색소폰 강습, 대중음악교실 등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창단 이후 국내외에서 120여 차례 공연을 가진 데 이어 민간 음악단체이지만 전통 음악교육에도 열성을 보이면서 제주청소년풍물단을 창단시키기도 했다. 음악 및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35명의 임원이 봉사하고 있으며 많은 후원 회원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이사장에 조문부(전 제주대 총장), 음악 감독 장홍용, 지휘자 장홍용·

〈표 7〉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07년 연주실적

No	일 자	연 주 회 명	장 소
1	2. 28.	제28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2	3. 26.	제21회 작은음악회	한라아트홀 소극장
3	5. 14.	마술과 함께 하는 클래식 콘서트	한라아트홀 대극장
4	6. 4.	아름다운 장한나와 함께하는 베토벤콘서트	문예회관 대극장
5	7. 5.	제22회 작은음악회	문예회관 소극장
6	8. 3.	제29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7	9. 20.	제23회 작은음악회	문예회관 소극장
8	10. 30.	2007 협주곡의 밤	한라아트홀 대극장
9	12. 27.	제24회 작은음악회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강경수·정운선, 사무국장 김형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상임이사 2명, 고문 3명, 이사 6명, 2명의 감사진 등 19명의 운영진이 있다. 각 악기별로 지도위원을 따로 두고 있으며 100여 명의 단원들이 가입돼 있다.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2007년 연주 실적은 <표 7>과 같다.

#### □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1997년 도내 청소년 23명으로 구성된 현악기 음악단체인 소리샘양상블로 출발해 현재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미래의 유능한 음악인 지도자를 육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YMCA의 기본 이념인 '보다 좋은 세상건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해마다 2회의 공연을 포함해 총 40여 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사랑과 희망축제 참가, 각종 자선음악회, 환자를 위한 병원 방문연주회 등 청소년들은 음악활동과 동시에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오사카초청 연주회, 세계섬문화축제 개막연주회 등을 했으며 홍정도 선생의 지도 아래 60명의 단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또 10명의 지도 및 운영위원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음악아카데미 수료생을 중심으로 <키즈양상블>도 창단했다. 2007년 6월 26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 □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는 제주신포니에타의 자매단체로 음악으로 꿈을 키워가는 도내 초·중·고교 5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체다.

김형삼 지휘자를 중심으로 2002년 11월 창단 연주회를 연 이후 정기연주회, 작은음악회, 초청연주회에 이어 연 2회의 음악캠프를 실시해 단원들의 실력 향상을 꾀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의 비루투오즈,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과 MIK 양상블 연주회에 찬조 출연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과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리고 제주도립교향악단과 합동연주를 가졌으며, 여름축제의 일환으로 「한밤의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탑동에서 세 차례 특별무대를 열기도 했다. 2007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 □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는 2002년 3월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부설 연주단체로 창단됐으며 2006년 1월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김인규 교수의 주

도 아래 도내 초·중·고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고 지역문화와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취지로 창단됐다. 1대 상임 지휘자 김인규 교수에 이어 2007년 이후 2대 상임 지휘자로 임대홍이 맡고 있다. 단원들은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로 실력을 닦고 있으며, 연주력 향상과 무대 경험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솔로 연주 기회도 주고 있다. 또 다양한 레퍼토리로 연 1회 이상 기획연주를 비롯해 음악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11월 7일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 2) 플루트 단체

### 서귀포 학생문화원 청소년플루트앙상블

서귀포학생문화원 소속 청소년플루트앙상블은 2006년 3월 서귀포시지역 초·중학생 23명으로 창단됐다. 산남지역 청소년의 음악적 재능과 건전한 정서를 기르고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했다. 청소년플루트앙상블은 매주 주말 정기연습 이외에 각종 축제 및 음악회를 앞두고 특별연습을 하며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2007년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또 합동연주 등을 통해 학생전문연주단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음악감독은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신애선, 지도강사는 박미향이다.

###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은 2002년 4월 제주플루트리틀앙상블로 출발해 2004년 12월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다. 2007년 2월 22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도내 플루트 연주단체의 특별공연과 겨울캠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음악감독은 제주도향 플루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문성집 선생이 맡고 있으며, 지휘는 제주플루트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제주플루티스트 앙상블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소영이 맡고 있다.

###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는 2003년 앙상블 단체로 시작하여 2005년 4월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플루트를 사랑하는 아마추어에서 전공자까지 4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순수한 음악단체이다. 김순길 음악감독과 김형삼 지휘자를 중심으로 앙상블 연주부터 플루트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하고

있다.

2007년 6월 6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 12월 10일 송년음악회를 가진바 있으며 방문연주회로는 창암재활원, 예지원, 춘강장애인센터 방문음악회를 개최하였다.

### 3) 관악합주 단체

#### □ 제주청소년관악단

관악기를 연주하는 도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음악단체로서 클래식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을 접하게 하여 수준 높은 청소년 문화활동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3년 창단된 음악단체이다. 2007년 8월 7일에는 중국 연변의 조선족자치주에서 「해외동포를 위한 한민족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제주청소년관악단의 2007년 연주실적은 <표 8>과 같다.

<표 8> 제주청소년관악단 2007년 연주 실적

No	일 자	연 주 회 명	장 소
1	1. 20.	제9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2	6. 9.	제10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3	7. 11.	찾아가는 음악회	분재예술원
4	7. 14.	찾아가는 음악회	함덕 혜정원
5	7. 28.	찾아가는 음악회	성산읍 미천굴
6	8. 3.	찾아가는 음악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7	8. 7.	한민족음악회	중국 연변대학교
8	10. 13.	찾아가는 음악회	세화요양원
9	11. 10.	찾아가는 음악회	함덕 혜정원



### 3. 독주회

2007년 독주부문은 기악연주가 11명이 무대를 꾸몄다.

#### 가. 기악 부문

- ① 1월 16일 대니정 색소폰 (한라아트홀 대극장)
- ② 2월 21일 김혜안 피아노 (문예회관 대극장)
- ③ 5월 15일~5월 16일 공상동 피아노(한라아트홀 대극장)
- ④ 5월 19일 심희정 피아노 (문예회관 대극장)
- ⑤ 5월 21일 이선영 비올라 (제주충신교회)
- ⑥ 6월 1일 이정석 클라리넷 독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 ⑦ 7월 18일 김원미 피아노 (한라아트홀 대극장)
- ⑧ 8월 14일 김태근 바이올린 (한라아트홀 소극장)
- ⑨ 9월 18일 송화은 바이올린 (문예회관 대극장)
- ⑩ 10월 5일 고상희 피아노 (문예회관 대극장)
- ⑪ 11월 10일 양웅선 클래식기타 (한라아트홀 대극장)
- ⑫ 11월 26일 임찬기 클라리넷 (한라아트홀 소극장)
- ⑬ 12월 4일 김지영 첼로 (한라아트홀 소극장)
- ⑭ 12월 4일 허대식 플루트 (한라아트홀 대극장)
- ⑮ 12월 11일 이동용 피아노 (문예회관 대극장)
- ⑯ 12월 13일 문지혜 플루트 (한라아트홀 대극장)
- ⑰ 12월 18일 백건우 피아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⑱ 12월 29일 고현수 바이올린(제주성안교회 이기풍 기념홀)

### 4. 2007년 제주의 음악축제

#### 가. 국제음악축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국제음악축제는 제주국제관악제이다.

## 1) 제주국제관악제

### 가) 제주국제관악제 소개

제주국제관악제는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함께 제주가 갖고 있는 평화로운 이미지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룬 제주도의 대표적 예술축제 중의 하나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도박이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1995년부터 격년제로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소규모의 전문양상블축제를 마련했다. 대중적 호응이 높고 축제성이 강한 홀수 해의 콘서트밴드축제와 함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짝수 해의 양상블축제가 개최되었다. 2000년에는 양상블축제와 함께 국제관악경연을 마련했다. 이 경연은 세계의 젊은 관악인들의 음악적 의욕을 높이고 우정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제주국제관악제와 더불어 2004년에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2006년에는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가 열린 바 있다.

### 나) 제주국제관악제의 운영방식

제주국제관악제의 목표는 홀수 해와 짝수 해가 각기 특징을 달리하여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해마다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열린다.

### 다) 2007년 제주국제관악제 참가팀

- ① 독일 / 루드빅스부르크 청소년오케스트라
- ② 대만 / 台北縣江翠國中學管樂團, 台北縣江翠國小管樂團, 蘭陽管樂團, 台北縣立錦和高級中學管樂團
- ③ 중국 / 北京華夏女中管樂團
- ④ 말레이시아 / 北海鍾靈中學管樂團
- ⑤ 대한민국 / 서울트롬본양상블, 서귀포시립관악단, 울산대학교심포닉밴드, 제주대학교윈드심포니, 광양제철초등학교관악단, 미추홀오카리나콰이어, 제주청소년관악단, 상명대학교윈드오케스트라, 보광고등학교관악합주단, 마론윈드오케스트라, 강원명진학교관악단, 해군군악대, 경북윈드양상블, 빅토리아심포닉밴드, 마산관악합주단, 신일중학교윈드오케스트라, 일신여자고등학교심포닉밴드, 중앙대학교윈드오케스트라, 제주윈드오케스트라

### 라) 2007년 제주국제관악제 초청연주자

겐키치 하라다(축제자문 / 일본), 스티븐 미드(유포니움 / 영국), 다니엘 카니발리(작곡 / 이탈리아), 야끄 모저(트롬본 / 프랑스), 벤 반 디크(베이스 트롬본 / 네덜란드), 예수한금관5중주단(대만), 안희찬(트럼펫 / 대한민국), 테리 선더버그(플루트 / 미국), 미하엘 마송(트롬본 / 독일), 켄트 에셀만(튜바 / 미국), 히로유키 구로가네(트롬본 / 일본), 세르게이 아키모프(호른 / 벨로루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대한민국)

마) 2007년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합창단

제주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합창단, 한라소년합창단,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KBS제주방송총국어린이합창단, CBS제주방송소년소녀합창단

바) 평가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2007년 8월 12일 개막된 제12회 제주국제관악제가 9일간의 금빛 울림을 끝내고 20일 밤 폐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주국제관악제에는 12개국 47개팀에서 3천여 명의 관악인들이 참가해 평화의 섬 제주를 금빛 나팔의 향연으로 물들였다. 특히 공연장소가 성산일출봉,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노형 기적의 공원 등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도내 곳곳에서 관악의 울림을 들을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더러 남기고 내년을 기약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지속적인 국제축제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이다. 제주국제관악제의 예산은 총 5억원으로 국비 1억원, 도비 3억원, 제주은행 지원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해마다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국제관악제가 12회째를 맞으면서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외국의 유명 관악인 초청과 대대적인 홍보 등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5억원이라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같은 성격의 축제인 <원주국제따뚜>의 예산은 15억원이 넘는다. 후발주자인 원주국제따뚜에 비해 예산이 열악하고 이에 따라 조직자체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

(2) 두 번째로 사무국 상설화의 문제이다. 현재 조직위원회 사무국에는 단 1명의 상

근직원이 있고, 축제가 임박하면 의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관악제를 준비하고 축제를 치르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원주국제따뚜가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해마다 축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주국제따뚜가 제주국제관악제를 벤치마킹하고 만든 축제임을 감안할 때 상설화된 사무국과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주 직원이 필요하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포함한 음악인들은 제주국제관악제가 명성에 걸맞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홍보와 기획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의 상설화가 시급하다는 조언을 한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악제를 주최하고 있는 만큼 사무국 상설화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3) 세 번째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도민들이 제주국제관악제를 즐기고 있으나 자발적인 참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이 관악제를 아끼고 사랑하며 참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 나. 도내 음악축제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도내 음악축제는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주최하는 제주관악제와 제주시에서 주최하는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회에서 주최하는 서귀포여름음악축제가 있다.

### 1) 제주관악제

#### 가) 제주관악제 소개

1992년부터 치러온 제주관악제는 제주국제관악제의 모태가 되는 축제이다. 그러나 제주국제관악제가 시작되면서 그늘에 가려 제주관악제의 위상이 떨어졌고, 몇 년 동안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존폐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01년부터 관악인들의 요구로 다시 개최되었다. 2007년 제주관악제는 순수 토종 제주관악인들의 무대였다. 2007년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에서 도내 중고교관악대원들과 시민밴드인 한라윈드앙상블이 공연하였다.

이번 제주관악제에는 도내 중·고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모두 10개 팀·600여 명의 출연자들이 오케스트라, 관악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 나) 제주관악제 참가팀

제주화북초등학교 관악대 / 제주광양초등학교 관악대 / 제주서중학교 관악대 / 대기고등학교 관악대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관악대 / 제주여자중학교 윈드 앙상블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관악대 / 대정고등학교 관악대 /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 / 한라윈드 앙상블

#### 다) 제주관악제의 운영과 문제점

제주관악제는 제주도내서 활동하는 관악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무대를 운영한다. 다른 지역 팀들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수용하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참가비 보조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주문예진흥기금 5백만원이 전부인 행사이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과 집행부에 부담이 되는 행사가 되고 있다. 과거 2년간 제주국제관악제와 같이 행사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다. 당시는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제주국제관악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제주국제관악제의 모체였던 제주관악제 또한 제주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도내 축제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금 생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관악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주도내에서 제주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 바로 제주관악제이다. 제주관악제는 제주관악인들의 구심체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관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들은 제주사회의 각계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무보수로 묵묵히 일을 하여오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무대를 꾸려나갈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아서는 안 되겠다. 도민 대화합을 위한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탐라합창제는 처음부터 제주도의 예산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해마다 3천만 원이라는 행사지원금이 편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행사인 탐라전국합창축제가 만들어졌다. 2007년인 경우 탐라전국합창축제의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1억, 문화광부 보조 1억이 지원되었다. 탐라전국합창축제의 모체인 탐라합창제는 해마다 3천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국제관악제의 모체인 제주관악제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 제주도내의 모든 관악인들이 깊이 생각하여야 할 과제이다.

## 라) 해결방안

제주관악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국제관악제 덕분에 제주도는 명실상부 관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관악 연주자들이 관심갖고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로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정작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이면에 제주인들의 무대가 없다는 것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국제관악제의 주 무대에 제주인들이 설 수 없다면 제주관악제라도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 제주의 관악인들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관악제가 국제관악제가 시작되기 전 2일간을 축제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제주관악제를 제주국제관악제의 서막 축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관악제와 제주국제관악제는 시기적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화려한 선율들을 선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외지의 관광객들은 제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 가)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소개

제주시에서 주최하는 한여름밤의 축제는 2007년 14회를 맞았다. 여름밤 제주시내 탐동의 해안을 배경으로 열리는 한여름밤의 해변축제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에서 열렸으며, 공연은 매일 8시에 시작되었다. 한여름밤의 해변축제는 모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름 밤바다의 정취를 느끼며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제주시가 자랑하는 공연문화이다.

이 축제는 실로 다양한 팀들이 출연한다. 특히 2007년 축제에서는 보다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순수예술에서부터 재즈연주, 비보이 공연, 대중가수 공연 등 다양한 대중적 장르를 제공하였다.

### 나) 2007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일정

2007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일정은 <표 9>와 같다.

〈표 9〉 2007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일정표

월 일	연 주 회 명	참 여 단 체
7. 20.(금)	개막공연	제주시립예술단, 테너 양광진, 소프라노 김유섬, 가수 나윤권
7. 21.(토)	별이 빛나는 밤의 콘서트	한라윈드앙상블
7. 22.(일)	남국의 향기 파도를 넘어	서귀포시립예술단
7. 23.(월)	제주에서 펼치는 팝의 향연	경남 팝스오케스트라
7. 24.(화)	제주음악협회와 함께하는 앙상블음악회	제주타악기앙상블, 제주신포니에타
7. 25.(수)	달구벌 흥이 제주까지	대구 교사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 관현악단
7. 26.(목)	미리보는 희망의 음악 '천상의 소리'	한라소년합창단, 우담바라소년소녀합창단, 제주소년소녀합창단, KBS어린이합창단,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CBS어린이합창단, 광주어린이합창단, 순천시립어린이합창단
7. 27.(금)	오페라 '하이라이트의 밤'	서울 오페라앙상블
7. 28.(토)	국악으로 듣는 '여름밤의 가요'	서울, 예기 실내악단
7. 29.(일)	[마당근] '귀향'	충북 청원, 예술공장 '두레'
7. 30.(월)	한여름밤의 재즈축제	레젠블루 빅 밴드
7. 31.(화)	한여름밤의 재즈축제	더 파이프
8. 1.(수)	한여름밤의 재즈축제	이루후제
8. 2.(목)	넘치는 젊음의 열정 DANCE SHOW in JEJU vol. 1	CDT, 천자재즈, 헬리온, 헤라스 오리지널 플레이바, 솔시스터즈
8. 3.(금)	춤의 파도를 타고	재즈라인 컴퍼니, 무용협회 제주시지부 숨비무용단, 오름무용단
8. 4.(토)	〈바다의 꽃〉	지이현 한 길로 무용단
8. 5.(일)	나몰라 웨밀리의 〈웃음바다〉	나몰라 웨밀리
8. 6.(월)	연극 〈뽕파전〉	극단가람
8. 7.(화)	한여름밤의 얼씨구 우리소리 한마당	제주민요연구소, 이어도예술단, 탐라예술단 칠십리 예술단
8. 8.(수)	7080 추억의 음악여행	제주도연예인협회 회원
8. 9.(목)	2008년 아름다움을 기다리며	JK 김동욱 밴드

### 다) 한여름밤의 해변축제의 평가

1994년 시작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피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14회를 맞은 2007년 축제의 무대에는 46개팀 1천1백40명(도내 32팀, 도외 14팀)이 무대에 올라 기악, 합창, 국악, 연극, 대중예술,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해변축제는 제주시청 문화체육과에서 기획하고 주최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무대에 서는 출연자들의 수준도 향상되고 있고 이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더 없는 즐거움이 되고 있는 성공적인 도내 문화축제라 하겠다.

## 3) 서귀포여름음악축제

### 가) 서귀포여름음악축제 소개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가 천지연 야외공연장에서 2007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2007서귀포 여름음악축제를 개최하였다. 「음악편지로 전하는 천지연의 향기」란 주제로 5일 동안 열린 이번 공연은 관악과 합창 등의 하모니로 천지연 일대를 수놓았다.

공연은 서귀포시립관악단, 서귀포시립합창단, 뚜렘브라더스, 서귀포금관5중주, 프라임 타악기앙상블, 콘서트콰이어, 사물놀이 마로, 어린이 기타 & C코드 앙상블, 인천 연수구립 관악단, 제주방송총국 KBS어린이 합창단, 서귀포YWCA 소년소녀합창단, 서귀포 학생문화원 청소년플루트앙상블 등이 출연하였다. 판소리 김민숙과 대금 조용석의 연주는 국악의 불모지인 제주의 무대에 새로움을 한껏 전해주었다.

### 나) 서귀포여름음악축제의 평가

서귀포여름음악축제는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 축제 또한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우수한 출연팀을 충분히 섭외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서귀포 천지연야외공연장의 절경은 누구라도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무대시설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무대가 위치한 곳이 문화재보호법에 관련이 되어 더 이상 무대를 확장하지 못한다고 한다. 좁은 무대와 한정되어 있는 조명과 음향 시설은 야외 공연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가 없어 아쉽다.



## 6. 맺는 글 (제주음악의 과제)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이 4개의 도립 단체들은 제주 음악의 표상이다. 새로운 연주 패러다임을 위하여 다양한 각도의 시각으로 이들은 제주도내 음악계를 바라보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단원의 기능향상과 이에 맞물리는 레퍼토리 구성, 음악 매니아들을 위한 다양한 팬서비스 또한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단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구애받지 않고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단원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있어야 된다. 현재의 공간은 합주실 위주의 공간으로 각 단원들이 개인 연습이나 파트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Violin 파트연습실, Viola 파트연습실, Cello 파트연습실, Contra Bass 파트연습실, 목관파트연습실, 금관파트연습실, 타악파트연습실 등이 필요하며 별도의 개인연습실 및 단원들의 휴식공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인연습을 하기 위하여 교향악단 연습실을 찾는 단원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각자의 연습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은 단원들 개인의 기량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합창단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이다.

서귀포지역은 더욱더 절실하다. 현재 서귀포예술단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관악단인 경우 지하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호흡을 이용하여 연주를 하는 관악단원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다 큰 관심과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란다.

제주도내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기악 관련 단체가 32단체, 성악 관련 단체가 26단체로 총 58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 연주단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 확보에 있다. 관립 연주단체들은 그나마 연습공간이라도 보유하고 특수 악기를 포함한 제반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 연주단체의 상황은 너무도 열악하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단원들 또는 임원들이 사비를 털어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심과 협조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들의 예술 활동은 자신들만의 문화향유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문화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쨌든 민간 연주단체에 대한 관 주도의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제주사람들의 전체적인 문화수준이 향상이 되고 청소년문화육성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주도내에서 청소년 음악예술 1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제주도는 참으로 청소년교육에 대하여 인색하다. 일전에 청소년음악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문화예술과에서는 청소년과 담당이라고 한다.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음악단체는 음악 관련이니 문화예술과의 담당이라고 서로 회피하며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다. 그 외의 여러 관련부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면을 빌려 여러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나 해가 바뀔수록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음악관련 협회에서도 청소년음악단체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을 갖춘 20대, 30대의 전문연주가가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정작 청소년이 성장하는 모습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완전하게 만들어지면 젓가락만 들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청소년 성장하는 동안 지켜보고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음악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의 음악에만 치중하다 보면 항상 우물 안 개구리밖에 될 수 없다. 미래의 주역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주의 음악이 나아갈 방향이다.

지금까지 제주의 음악을 발전시키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각계에서 힘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음악인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에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

- 글 / 윤 정 택 (제주청소년관악단 지휘자)

## 2007 제주의 성악

### 1. 머리말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가 목소리라고 한다. 이런 고귀하고 소중한 목소리를 통해 아름다움을 들려줄 수 있음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합창이란 분야는 혼자만의 소리를 나타냄보다 여러 사람의 소리를 하나로 만들고 다듬어 가는 과정이기에 몹시 힘들기도 한 작업이지만 그에 따르는 성취감과 행복감은 더해질 것이다.

합창 분야가 단순한 음악의 관계를 떠나서도 인간과 인간의 어울림, 상대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존중 등이 어우러져 뭔가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기에 배우며 느끼는 부분이 많은 분야임이 틀림 없다.

제주사람의 소박함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제주의 음악인들 맘속에 자리 잡고 표현되어 우리 제주의 합창계도 많은 발전을 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7년 제주 합창단들의 모습과 활동 등을 통해 오늘 제주의 합창을 돌아보고자 한다.

### 2. 제주의 합창단 현황

#### 가. 전문(professional) 합창단 :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과 서귀포합창단

제주합창음악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제주시립합창단과 서귀포시립합창단이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과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아직도 양

단체의 정확한 행정적 지원 및 구분을 놓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통합이 전문 음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도 인식하고 음악인들 스스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갖고 나아갈 때 주위 여건과 맞으므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나. 일반 (amateur) 합창단

### □ 혼성합창단

제주부부합창단(느영나영), CBS아가페합창단, 칸투스합창단, 펠릭스합창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 □ 남성합창단

제주남성합창단, 슬렘남성합창단, 리조이스중창단, 콘서트콰이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 여성합창단

돌체우먼코러스, 레이디싱어즈, 불교여성합창단, 주부교실한소리여성합창단, 칸타빌레 앙상블, 챔버코랄, YWCA여성합창단, 서귀포굴빛여성합창단 등이 있다.

### □ 어린이합창단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 KBS제주방송총국어린이합창단, 대정청소년합창단,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한라소년합창단, 표선유스콰이어, 제주YMCA유스합창단, 서귀포YWCA어린이합창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합창단 외에도 각 종교단체별로 활동하고 있는 라파선교합창단, 제주장로합창단 등이 조직되어 있고 꾸준히 연습하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 있는 많은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합창단을 조직하여 음악을 통한 포교와 구원 사업에 열심이다. 각 사찰에 속해 있는 합창단 별로 꾸준히 정기연주회를 해 오고 있는 데도 있고 각 종단 연합으로 모여 연습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에 기여

하고 있다.

### 3. 연주회로 살펴본 제주의 합창

2007년 한 해도 제주도내의 많은 합창단들이 활발히 활동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합창단과 서귀포합창단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여러 모습으로 많은 연주회를 펼쳐 보였다.

1월에 있었던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의 제주공연은 제주의 합창인들에게 귀한 음악감상의 기회였다.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합창단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운이었다.

제주출신 성악가, 소프라노 강혜명의 활동 소식이 2007년 초에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제주성악계가 활기를 띠는 듯했다. 그는 현재 일본 후지와라 오페라 단원이며 프랑스 오페라 마르세유 솔리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제주여고를 졸업했고 추계예술대를 거쳐 파리에서 수학하였다.

젊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주챔버코랄이 정기연주회를 보여 주었고, 2007년 22회의 정기연주회 역사를 자랑하는 CBS아가페합창단의 정기연주회도 있었다. 성악을 전공한 남성들로만 구성된 제주콘서트콰이어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3월에는 특히 제주장로합창단이 창단되어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제주YWCA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제주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칸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크고 작은 연주회들이 많았다. 꾸준히 제주의 합창 음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제주합창단과 서귀포합창단의 연주 역시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보고 듣고 느낌으로 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합창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의 신인 음악회와 갈라 콘서트 등도 주목할 만한데, 꾸준히 가곡의 밤 등을 개최하여 훌륭한 성악인들을 많이 키워주고 있기도 하다. 펠릭스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솔렘남성중창단의 정기연주회, 돌체우먼코러스 등의 활발한 연주도 제주 합창의 역사에 소중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솔리스트의 창단도 앞으로 제주 합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성악가들의 독창회도 잇따라 열렸던 것을 언급하고 싶다.

바리톤 정용택 독창회, 소프라노 김지영 독창회, 소프라노 정여은 독창회, 소프라노 김

수정 독창회, 소프라노 현선경 독창회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4인 음악회라든가 기획공연 등의 이름으로 많은 성악가들이 무대에 서고 있다.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의 활동도 서귀포지역 음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더불어 제주의 성악, 합창 분야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 합창분야도 각 단체별로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교류연주회 등이 다양하게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7월에 대정청소년합창단 주최로 제1회 한·중 문화교류합창제가 대정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다.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른 친구들과 같은 무대에서 연주함으로써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뭔가 특별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합창이라는 작업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분야이다. 양보와 이해 속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고 여러 색깔의 소리가 하나로 다듬어지는 모습 속에서 겸손과 양보를 배울 때 우리 사회와 미래가 밝아진다.

각 합창단 별로 쉽 없이 연습하고 다듬으며 하나를 이루어 감을 연주회에서 느낄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기까지 하다. 분명한 목표를 하나로 만들고 서로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하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합창음악 안에서 행복해질 것이다.

#### 4. 제주의 합창을 이끌어 온 탐라합창제와 탐라전국합창축제의 의미

##### 가. 탐라합창제

1990년부터 시작된 탐라합창제는 제주도의 합창 역사로 되돌아본다면 큰 의미가 있다.

당시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제주방송총국의 주관으로 읍면동부, 직장·사회단체부, 학생부 등으로 나누고 합창 및 중창의 분야로 나누어 경연을 펼쳤었다. 각 동사무소 및 관할구역에서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었고 각자의 일들을 마친 밤늦은 시간에 모여서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연습에 임했던 일들을 기억한다. 합창 21팀(읍면동부 7팀, 직장·사회단체부 12팀, 고등부 7팀) 중창 12팀이 경연을 펼침으로써 그 시작을 열었다.

1991년 제2회 때는 제주도와 KBS제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가 되고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가 주관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제주의 음악인들이 행사 전반에 참여하면서 합창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고 본다. 물론 그 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 오신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제2회부터 4회까지는 제주도와 KBS제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로 행사를 진행해 오다

가 1994년 제5회 행사부터 제주도 주최,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 주관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순수 아마추어 입장에서 바쁘고 힘든 가운데 시간을 내는 열정들이 있었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힘든 삶과 애환을 음악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어찌면 나름대로 기쁘이고 위안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제주에 탐라합창제란 행사가 있어서, 더욱이 제주도라는 큰 울타리가 든든한 주최와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흔들림 없이 오늘에까지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덕에 제주합창이 다른 지방에 비해 활발했다고 본다.

이 행사를 통해 합창 음악에 관심을 갖는 많은 도민이 탄생했고 합창단을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아쉬움이라면 2007년 제18회 탐라합창제 참여 팀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학생부 14팀(합창 9팀, 중창 5팀), 일반부 8팀(합창 7팀, 중창 1팀)이 경연을 펼침으로써 예전에 비해 합창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제주합창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은 여러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합창인들 각자의 관심이 높아져야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탐라합창제가 될 것이다.

#### 나) 탐라전국합창축제(2008년부터는 ‘제주국제합창제’로 명칭 변경)

2001년에 ‘한국 합창의 활성화와 제주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제주도가 주최하고 탐라전국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시작되었다. 제주도의 자연적, 지리적, 기후적 조건의 혜택에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성악 분야와 대중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합창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서 음악을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감을 추구하고 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창작위촉곡(합창, 가곡) 발표회, 소년소녀합창의 날, 야외합창축제 등으로 나뉘어져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전국합창경연대회를 통해 전국의 아마추어 합창단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를 하고 있다. 제주 시인의 시나 제주를 소재로 한 시를 노랫말로 현재 활발히 작곡활동을 하는 작곡가들에게 곡을 위촉하여 제주의 곡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이 노래들을 전문 합창단과 성악가들에게 연주를 의뢰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악보집 및 CD를 만들어 널리 보급하고 있음은 자랑할 만하다.

축제 기간 동안 여름밤에 야외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제주의 여름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제주도민이나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시간들이 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단순히 일회성 공연으로 그치지 않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며칠에

걸쳐 축제가 진행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한여름 밤의 낭만이 되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 합창단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미래 음악의 꿈나무들에게도 좋은 경험과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단순히 음악만을 배우기보다 단체생활을 통한 경험과 교육들, 음악을 하는 자세와 음악을 듣는 자세 등을 통해 제주의 소년소녀들이 커 나갈 때 우리 제주 합창의 미래 역시 커 갈 것이며 이 사회가 더 밝아지리라 생각한다.

2007 탐라전국합창축제는 7월 18일(수)부터 7월 22일(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 산지천 광장, 서귀포시 천지연 야외공연장 등에서 열렸으며 7월 21일에는 '제주문화관광축제현황과 탐라전국합창축제의 국제화 방안', '국내가곡운동과 탐라전국합창축제의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합창인들의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으로 다시금 제주 합창의 이모저모를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다.

국내 전문합창단 7팀(대구시립합창단, 아산시립합창단, 마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과천시립여성합창단, 서귀포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주도내 아마추어 합창단 10팀(칸투스합창단, CBS아가페합창단, 남성합창단, 칼리오페합창단, 돌체우먼코러스, 부부합창단, 챔버코랄, 콘서트콰이어, 펠릭스합창단, YWCA여성합창단), 제주도내 소년소녀 합창단 7팀(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한라소년합창단, 서귀포YWCA어린이합창단, KBS제주방송총국어린이합창단, 대정청소년합창단, 제주소년소녀합창단)이 미국 애리조나소년합창단, 타이페이 필하모닉어린이합창단 등과 함께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합창의 장이 되었다.

이외에도 유명한 작곡가 최영섭 선생님, 임공수 선생님 등의 위촉곡을 대구시립합창단이 연주했고, 특히 창작 위촉 가곡은 제주출신으로 유럽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강혜명을 섭외하여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역시 제주출신의 메조소프라노 김지선과 테너 차부기의 연주도 고향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울려 퍼진 매우 뜻 깊은 연주였다.

외부 여러 단체의 연주와 음악을 통해 우리 제주 합창의 현실을 바로보고 비교·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축제라 할 수 있다.

2007년까지 개최되었던 이 축제는 2008년부터는 제주국제합창제로 명칭을 바꾸어 좀 더 많은 합창단들의 연주와 교류를 통해 제주의 합창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성장하려고 있다. 제주가 세계 속의 제주, 세계 속의 합창의 섬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5. 제주합창의 현 주소

예전에 비해 부쩍 많아진 연주 단체들을 보면서 흡족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들이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연주 홀과 연주 기회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아마추어 단체들이 연주 홀을 대관하는 어려움이라든지 대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합창단들이 부담 없이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연주 홀이 더 많이 생겨서 대체적으로 그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시일 안에 그들의 연주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물론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할 순 없겠지만 이들 외에도 어려운 점이 많은 민간 아마추어 단체이고 보면 어느 부분 하나라도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생각에서 언급하는 것이다.

한국합창총연합회제주도지회에서는 해마다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연주 가능한 단체를 섭외하여 연주함으로써 진정한 제주의 소리, 제주 아마추어 합창단을 한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더불어 서로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꾀해 보기도 한다.

어느 연주회장이면 관객이 넘쳐나야 훌륭하고 성공적인 연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한다. 물론 관객이 가득 차 있어야 연주자들이 신나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 이전에 연주자들이 좀 더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고 더 흥미로워 하는 레파토리를 선정해서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그들로 하여금 연주회장을 찾게 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같이하여 홍보할 때 연주자와 관객 모두 신나고 재미있는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사회의 요구도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 음악인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을까 되돌아봄도 중요하다.

오디오와 비디오 등 방송매체의 발달로 어렵다고만 여겨졌던 순수음악 분야도 예전에 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을 바로 인식하고 각 합창단마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키워 나갈 때만이 우리들의 음악 또한 향상될 것이다.

여러 명이 같은 악보를 보며 해석해 나감에 있어서 지휘자의 역할이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반주자의 역할도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눈으로 보면서 따르는 합창의 해석은 지휘자를 따라갈 일이지만, 귀로 듣는 합창의 재해석은 반주자의 손에 달려 있다. 즉 반주자는 보이지 않는 지휘를 하는 것이다.

합창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휘자는 단원들의 소리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반주자의 소리까지 만들어 가야 하며, 반주자 역시 지휘자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지휘자가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고 단원들이 화사하게 소리를 낼 준비를 하는데 반주자의 리듬이나 소리가 그를 따라주지 못할 때 청중에게 호응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는 반주자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 우리 제주에도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합창단에서 반주자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모습을 종종 접하기도 한다. 그만큼 반주라는 분야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많은 공부와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 등이 필요하고 단순히 지휘자와 손끝을 맞추는 것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혼자서 해내는 독주의 형식보다는 지휘자와의 분명한 비트를 나누고 단원들의 호흡소리를 읽어내는 감각 있는 반주자가 많았으면 한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이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아쉬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언급해 본다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듯이 합창단 지휘자 및 관계자들이 각자의 합창단들을 위해 애정을 갖고 발전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 않는다면(예를 들어 새로운 레파토리의 확보, 연주회 구성, 소품, 의상 등의 부분에서의 차별화된 노력) 분명 신나고 재미있는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6. 맺음말

앞서 언급했던 탐라합창제가 꾸준히 18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음은 우리 제주도 내에 음악을 좋아하고 합창을 사랑하는 인구가 많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제주출신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합창의 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음악협회제주도지회와 한국합창총연합회제주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제주국제합창제 등에서 이뤄지는 많은 활동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평화의 섬 제주가 우리네 음악인들이 찾고 싶은 '음악의 섬, 합창의 섬'으로 인식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접목시킨 이상적인 아름다운 섬

제주가 되는 그날을 꿈꿔 본다.

이런 실현을 위해 음악인들 각자의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로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음악인들의 삶의 양과 질도 향상될 것이다.

한 순간에 급격히 달라질 순 없겠지만 지금껏 해 왔듯이, 느리지만 결코 느리지만은 않은 걸음으로 우리 제주의 음악계, 합창계가 나아갈 것을 희망해 본다.

- 글 / 우 지 숙 (한국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

## 2007 음악분야 현황 분석

### 1. 머리말

음악분야의 현황 분석은 일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글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07년 한 해 동안 열렸던 음악분야의 공연 현황을 집계 분석하고 그 외의 주요행사를 기록했다.

음악 공연 분류는 작곡, 기악, 성악, 오페라, 기타(종합) 공연으로 5개 장르로 나누었다. 기악 부문은 크게 독주와 관현악, 현악, 건반악, 앙상블로 구분하였으며, 성악은 독창과 합창, 기타 성악 공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행사 부문으로 세미나, 콘쿨, 마스터클래스, 캠프, 국내외 공연 등을 정리하였다.

공연 횟수는 가능한 음악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동일 행사의 반복은 1회로 하였으며 같은 음악회라도 프로그램과 장소가 다르면 그 횟수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 외에도 각종 자료의 미흡과 정확히 확인되지 못한 행사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 2. 2007년도 양악 공연

2007년도 양악 공연은 총 349회로 집계되었다.

〈표 1〉 2007년도 양악 공연 부문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비율(%)
작곡					1		1					4	6	1.7
기악	10	13	9	6	27	7	8	44	11	17	18	28	198	56.7
성악	3	3	5	4	4	7	10	0	3	6	6	14	65	18.6
오페라						1	1					1	3	0.9
기타	3	4	7	2	7	2	3	25	6	3	9	9	77	22.1
계	16	20	20	12	39	17	23	69	20	26	33	58	349	100

〈표 1〉을 보면 기악, 기타(종합), 성악 공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곡 분야와 많은 자본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오페라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대한민국 양악계의 전반적인 현상이며 작곡과 오페라 분야의 활성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월별 현황은 5월과 12월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 탐라전국합창축제, 한여름 밤의 해변 축제 등 대규모 축제가 있는 7, 8월에 많은 공연이 열렸다.

〈표 2〉 최근 3년간 연도별 · 부문별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작곡	3	3	6
기악	179	187	198
성악	64	85	65
오페라	2	2	3
종합/기타	70	39	77
계	318	316	349

〈표 2〉에 나타나듯이 2007년에는 성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전년 대비 공연 횟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기타(종합공연)가 증가했으며, 앞으로 관객에게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장소별 공연 현황

장 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	6	13	8	8	15	14	8	18	15	12	13	22	15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소극장			1		1		1		1			7	11
한라아트홀 대극장	2	1	4	3	6	1	1	1	0	7	8	4	38
한라아트홀 소극장			3	1				1			2	4	11
제주해변공연장				1			6	12					19
김정문화회관			2		1					1	1	2	8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13	1				14
서귀포여성문화센터												1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1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1	1	2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1						1		2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1		1	4
서귀포휴양림								1					1
자작나무숲			2	2	2	2	2	2	2	2	2	2	20
고산초등학교					1		1						2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2	2
금악초등학교					1								1
대정초등학교					1								1
노형 기적의 공원								6					6
노형 부영아파트								1					1
노형초등학교 해안분교							1						1
노형 e 편한세상										1			1
대정청소년수련관							1					1	2
대정농협 대강당												1	1
돌 문화공원 야외공연장						2							2
동홍초등학교												1	1
방선문 계곡					1								1
섬성여고 목련관												1	1
서귀고등학교											1		1
신제주초등학교							1						1
아름다운교회											1	1	2

장 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에일초등학교 더럭분교					1								1
예지원												1	1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									1				1
우도 고래콧구멍								1					1
위미초등학교												1	1
제주신라호텔	6	6					1					1	14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	1												1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관현악실												1	1
제주대학교 법정대 중강당										2	1		3
제주대학교 체육관					1								1
제주성안교회 이기풍 기념홀												1	1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1								1
제주의료원	1												1
제주충신교회					1								1
천왕사					1								1
춘강장애자복지회관							1						1
평안요양원					1								1
풍림콘도												1	1
한라수목원					1								1
한라체육관					1								1
해비치리조트											1		1
해인어린이집										1			1
롯데호텔 대연회장								12					12
계	16	20	21	15	39	19	24	68	20	27	32	58	357

많은 공연이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과 한라아트홀 등에 집중되었고, 7~8월에는 해변 공연장과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등에 집중되었다. 노형 기적의 공원이 제주국제관악제의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소극장 형태의 자작나무숲에서도 꾸준한 공연이 펼쳐졌다.

음악단체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기타 방문 공연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졌으며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적 향유 기회가 늘어나면서 도민들 틈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제주시 지역에 여전히 공연이 편중되어 있으며 서귀포지역의 공연은 15% 정도에 머물고 있다.

## 가. 작 곡

2007년 작곡 부문은 총 6회이다.

개인 작곡 발표로 강문철 창작연가곡발표회가 있었다. 역새를 소재로 한 김순이 시인의 연작시 『역새의 노래』 중 「너는 기도할 때」 등 총 9곡의 연가곡과 「한라산」 등 7곡의 창작가곡을 발표하였다.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작곡 연구부가 작곡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탐라전국합창축제의 공연으로 창작합창과 창작가곡의 밤이 열렸다.

음악단체에서도 2007년도는 여러 작품을 선보였다. 제주오페라단은 창작곡으로 故 현곡 양중해 선생 추모음악회를 열고 제주대학교 합창단 등이 출연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는 작곡가 고승익, 이종구, 송 은, 이문석의 작품으로 창작음악의 밤을 공연하였으며, 제주윈드오케스트라도 두 번째 제주민요집 발간 음악회를 가졌다.

특히 Daniele Carnevali 곡 'Halla Fantasy'는 2007 제주국제관악제 위촉곡으로 최근 이탈리아에서 출판되었으며 제주음악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데 공헌하였다.

〈표 4〉 2007년 작곡 부문 공연

일 자	행 사 명	주최·주관	장 소
5. 28.	시인 양중해 추모음악회	제주오페라단	문예회관 대극장
7. 20.	창작합창의 밤 창작가곡의 밤	탐라전국합창축제조직위원회	문예회관 대극장
12. 1.	창작음악의 밤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문예회관 대극장
12. 6.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2회 제주민요집 발간음악회	제주윈드오케스트라	한라아트홀 대극장
12. 7.	작곡발표회	제주대학교 작곡연구부	제주대학교 관현악실
12. 9.	강문철 창작 연가곡 발표회	강문철	문예회관 대극장

## 나. 기 악

### 1) 독주회

기악 부문 중 독주회를 따로 정리하였다. 독주회는 총 18회로 2006년 23회, 2005년 20회보다 적은 수치였다. 피아노가 7회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클래식기타가 2회, 비올라, 첼로, 색소폰이 1회였다.



〈표 5〉 독주회 현황

구분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클래식기타	계
연주횟수	7	2	1	1	2	2	1	2	18
비율(%)	39.5	11	5.5	5.5	11	11	5.5	11	100

〈표 6〉 독주회 부문 월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피아노		1			2		1			1		2	7
바이올린									1			1	2
비올라					1								1
첼로												1	1
플루트												2	2
클라리넷						1					1		2
색소폰	1												1
클래식기타					1						1		2
계	1	1			4	1	1		1	1	2	6	18

독주회 연주자들로는 피아노에 김혜안, 심희정, 고상희, 이동용 등이 무대에 섰으며 KBS제주방송총국 주최로 공상동, 김원미, 백건우 등이 초청공연을 가졌다. 바이올린 연주자로는 송화은, 고현수, 비올라에 이선영, 첼로에 김지영, 플루트에 허대식, 문지혜, 클라리넷에 이정석, 임찬기 색소폰에 대니 정, 클래식기타에 양웅선, 조상구 등이 독주회를 가졌다.

## 2) 관현악

관현악 부문 공연은 총 44회다.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해마다 연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정기연주회 및 협주곡의 밤, 기타 특별연주회뿐 아니라 방문 연주 등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상 기회를 주고 있다.

〈표 7〉 관현악 공연 연별·월별 현황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4	4	2	2	4	5	2	3	2	2	3			29
2005	4	1	1	2	2	1	2	1	5	4	5	3	31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6	4	2	2	1	5	5	4	1	5	4	4	4	41
2007	2	4	1	2	11	4	5	2	4	4	3	2	44

관현악 부문에 활동한 단체로는 제주교향악단, 제주대학교오케스트라,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한라챔버오케스트라,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주여자중학교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표 8〉 2007년 도내 관현악단 공연 월별 현황

단 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도립제주교향악단	2	2		1	4	2	4	1	2	1	1	1	21
제주대학교 오케스트라										1			1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1	4					1		1	7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	1		1	1	1	1	1	1		1	9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1					1		2
제주여자중학교오케스트라		1							1				2

〈표 8〉은 2007년 도내 관현악단 월별 현황이다. 도립제주교향악단은 제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6회의 정기연주회, 특별음악회 기타 방문음악회 등을 열었고 2007 교향악축제(예술의 전당 4월 21일)에 참가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부르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 1, 7, 2, 6을 연주했다.

전문연주단체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는 2회의 정기연주회 및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4회의 방문연주회를 가졌다. 특히 38회 정기연주회는 4명의 작곡가의 창작 작품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꾸준한 활동의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장한나와 함께하는 베토벤 콘서트(64 도문예회관대극장)를 개최했으며, 정기연주회 및 협주곡의 밤 그리고 단원들 기량향상을 위한 작은음악회도 꾸준히 개최했다.

제주대학교오케스트라,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주여자중학교오케스트라도 정기연주회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회등을 개최했다.

도의 관현악단으로 코리안심포니의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 유라시안필하모니의 2007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이 있었다.

### 3) 현 악

2007년 현악 공연은 총 15회 개최되었다. 현악 부문 연주단체로는 제주대학교 현악연구부, 제주신포니에타, 한라챔버오케스트라,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 등이다. 제주현악의 역사와 발전의 밑바탕이 된 제주대학교 현악연구부의 제16회 정기연주회가 있었으며, 제주신포니에타는 리빙콘서트 '봄의 왈츠'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개최했다. 한라챔버오케스트라는 제5회 정기연주회, 농어촌 지역 해설음악회 및 오페라 「제주기 애랑」 등을 개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청소년 단체인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와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도 정기연주회 및 기타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했으며 이러한 청소년 단체를 통해 제주현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표 9〉 2007년 현악 부문 공연 월별 현황

단 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제주대학교 현악연구부									1				1
제주신포니에타				1	1						1	1	4
한라챔버오케스트라				1	1	2		1			1	1	7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1				1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								1			1		2

### 4) 관 악

기악 공연의 50%는 관악이 차지할 정도로 제주 관악계는 활발하다. 우리나라 최대의 관악 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도 늘 뜨겁고 행복하다.

〈표 10〉은 2007년 도내 관악 단체의 정기 공연을 정리했다. 참고로 관악기로 이루어진 앙상블도 관악에 포함시켰다.

〈표 10〉 2007 관악단체 정기연주회 현황

일 자	행 사 명	연 주 단 체	장 소
1. 20.	제주청소년관악단 정기연주회	제주청소년관악단	문예회관 대극장
2. 10.	제4회 남녕 동문 음악회	남녕고 동문회	문예회관 대극장
2. 22.	제5회 제주도청소년플루트앙상블정기공연	제주도청소년플루트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3. 3.	프라임타악기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프라임타악기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일 자	행 사 명	연 주 단 체	장 소
3. 8.	서귀포시립관악단제23회 정기연주회 새봄을 여는 금빛나팔소리	서귀포시	서귀포학생문화원
3. 23.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윈드오케스트라	문예회관 대극장
5. 1.	제주대학교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	윈드심포니	문예회관 대극장
5. 21.~ 5. 22.	서귀포시립관악단 제2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시립관악단	김정문화회관 문예회관 대극장
5. 26.	한라윈드앙상블 제37회 정기연주회	한라윈드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5. 27.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6. 6.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문예회관 대극장
6. 9.	제주청소년관악단 정기연주회	제주청소년관악단	문예회관 대극장
7. 1.	제2회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8. 10.~ 8. 11.	2007 제주관악제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탐동 해변공연장
8. 12.~ 8. 20.	제12회 제주국제 관악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도 전역
8. 28.	제주도플루트협회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특별자치도플루트협회	문예회관 대극장
9. 28.	오현음악제	오현고등학교	문예회관 대극장
10. 14.	프라임타악기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프라임타악기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10. 20.	제5회 제주 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클라리넷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10. 23.~ 10. 24.	서귀포시립관악단 제25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시립관악단	김정문화회관 문예회관 대극장
11. 9.	제7회 지음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지음클라리넷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11. 18.	제주타악기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타악기앙상블	한라아트홀 대극장
11. 29.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12. 5.	제주중앙고 음악제	제주중앙고	문예회관 대극장
12. 6.~7.	제3회 원 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원타악기앙상블	한라아트홀 소극장
12. 15.	한라윈드앙상블 제38회 정기연주회	한라윈드앙상블	문예회관 대극장
12. 21.	서귀포시립관악단 제26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시립관악단	김정문화회관
12. 26.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서중학교	문예회관 대극장
12. 29.	제주브라스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브라스앙상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주의 대표적인 관악단인 도립서귀포관악단은 6회의 정기연주회와 5회의 특별연주회, 24회의 초청공연 등 총 40회의 공연을 소화했다. 또한 원주따뚜 음악편지 초청연주, 대구 전국우수관악단 초청연주 등을 통해 제주관악을 전국에 알렸다. 제주윈드오케스트라는 제주국제관악제 환영음악회, 정기연주회 및 제주민요 발간음악회 등을 개최했다.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는 정기연주회 개최 및 전국 음악대학 심포닉밴드 제8회 가을축제에 참가하였으며 수준 높은 공연으로 찬사를 받았다. 시민밴드인 한라윈드앙상블도 꾸준한 활동으로 관객에게 다가갔으며, 금관악기 구성으로 된 제주브라스앙상블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플루트, 클라리넷, 타악기 등으로 이루어진 앙상블 연주단체들도 꾸준한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아마빌레 플루트 앙상블이 새로 창단되었다.

청소년 단체인 제주청소년관악단과 각 학교의 관악대 역시 정기공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악회를 가졌다.

〈표 11〉 2007 제주관악제 참가단체

일 자	단 체 명
8. 10.	제주화북초등학교 관악대, 제주광양초등학교 관악대, 제주서중학교 관악대, 대기고등학교 관악대, 제주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관악대
8. 11.	제주여자중학교 윈드앙상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관악대, 대정고등학교 관악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관악대, 한라윈드 앙상블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주최로 2007 제주관악제가 8월 10·11일 각각 제주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있었다. 또한 공개강좌로 도내 교악대의 학생들의 기량연마와 연주력 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 2007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2007 제주국제관악제가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홀수 해에 맞춰 밴드축제로 기획된 가운데 장소를 기존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과 문예회관, 서귀포 천지연야외공연장, 그리고 노형 기적의 공원과 성산일출봉 야외공연장, 저지예술인마을 야외공연장 등으로 추가, 확대했다. 또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읍면별 자매결연팀을 구성해 공연관람과 시가 퍼레이드 참여를 유도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민간교류도 활성화했다.

참가 인원은 12개 국 46개 팀 2,7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밖에 제2회 대한민국동호인관악단 경연대회가 14일 오후 3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한편 축제기간 동안 관악기 수리코너가 문예회관에서, 축제사진전시회는 문예회관과 해변공연장에서 동시에 마련되었다. 트롬본캠프는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플루트캠프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제주윈드오케스트라는 환영음악회에서 안효영(코리아브라스콰이어 전속 작·편곡가)의 '제주민요환상곡' 과 다니엘 카니발리(이탈리아 전문작곡가)의 '하라환상곡' 등 위촉작품이 헌정 연주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유포니움 연주자 스티븐 미드와 대만의 예수한 금관오중주, 한국의 트럼펫 연주자 안희찬 등도 협연하였다.

〈표 12〉 2007 제주국제관악제 공연 일정

일시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오후 8시	노형 기적의 공원 오후 8시	천지연야외공연장 오후 8시
	오전 11시	오후 3시			
8.12. (일)		서울트롬본앙상블 서귀포시립관악단 울산대학교심포니밴드	개막식 제주대학교윈드심포니 독일루트비스부르크청소년관악단	광양제철초등학교관악단 중국 북경화하여자중학관악단	대만 대북현강취국중학관악단 대만 대북현강취국소관악단
8.13. (월)	독일 루트비스 부르크청소년관악단	대만대북현강취국중학관악단 미추홀오카리나콰이어 대만대북현강취국소관악단	광양제철초등학교관악단 중국 북경화하여자중학관악단 제주청소년관악단	서울트롬본앙상블 서귀포시립관악단 상명대학교윈드오케스트라	미추홀오카리나콰이어 울산대학교심포니밴드
8.14. (화)	대만 란양관악단	동호인관악단경연대회 상명대학교윈드오케스트라	보광고등학교관악합주단 마론윈드오케스트라 대만 란양관악단	대만 대북현강취국중학관악단 미추홀오카리나콰이어 대만 대북현강취국소관악단	중국 북경화하여자중학관악단 강원명진학교관악단 대만대북현립금회고급중학관악단
8.15. (수)	광주시립국악 관현악단	화북초등학교관악부 강원명진학교관악단 중국 북경화하여자중학관악단	환영음악회(제주의 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주윈드오케스트라		
8.16. (목)	해군군악대	말레이시아 북해중령중학관악단 광양제철초등학교관악단 보광고등학교관악합주단	경북윈드앙상블 빅토리아심포니밴드 상명대학교윈드오케스트라	말레이시아 해중령중학관악단 예수한금관5중주 대만대북현립금회고급중학관악단	마산관악합주단 마론윈드오케스트라
8.17. (금)	마산관악합주단	빅토리아심포니밴드 경북윈드앙상블	신일중학교윈드오케스트라 강원명진학교관악단 해군군악대	일신여자고등학교심포니밴드 독일루트비스부르크청소년관악단	빅토리아심포니밴드 말레이시아 북해중령중학관악단 대만 란양관악단

일시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오후 8시	노형 기적의 공원 오후 8시	천지연야외공연장 오후 8시
	오전 11시	오후 3시			
8.18. (토)	중앙대학교윈드 오케스트라	신일중학교윈드오케스트라 대만대부현립금회고급중학관악단	말레이시아 북해중령중학관악단 대만대부현립금회고급중학관악단	대만 관양관악단 중앙대학교윈드오케스트라	신일중학교윈드오케스트라 일신여자고등학교심포닉밴드 독일루트비스부르크청소년관악단
8.19. (일)		일신여자고등학교심포닉밴드	일신여자고등학교심포닉밴드 중앙대학교윈드오케스트라		
8.20. (월)			독일루트비스부르크청소년관악단		

### 5) 건반악

총 16회 공연했으며, 7회의 피아노 독주회와 9회의 다양한 공연을 개최했다.

〈표 13〉 2007 건반악 공연 월별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독 주		1			2		1			1		2	7
중 주			2	1					1	3	2		9

제주피아노학회는 정기공연과 교류 음악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정향희의 정기 연주회가 있었고, 듀오 콘서트로 박순방-임자향, 심희정-양진희, 박순방-장진경의 연주가 있었다. 또한 여덟손을 위한 연주회로 한라아트홀과 김정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공연도 있었다. 과거 피아노 독주로만 인식되었던 공연이 점차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6) 앙상블

총 17회의 앙상블 공연이 있었다. 정기연주회로 제주앙상블 준, 모던앙상블, 제주앙상블 드림이 공연을 가졌으며 제주 피아노트리오는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라는 주제로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새로 창단된 현악사중주 단체로 솔로이스츠 창단연주회가 12월 18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있었다.

〈표 14〉 2007 앙상블 공연 월별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앙상블	1	1	1	3	1	1	1		1	3	2	2	17

## 다. 성 악

2007년 성악 부문 공연은 총 65회로 전체 공연의 18.6%이다.

### 1) 독창회

독창회는 총 9회로 2005년보다 3회 많은 횟수이다. 정용택, 김지영, 정여은, 김수정, 현선경의 독창회가 있었으며, 홍혜경 크리스마스 제주 콘서트가 있었다. 도외 활동으로 테너 장호진은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소프라노 김정희는 캐나다 UBF Waterloo center 에서 2회의 독창회를 열었다.

### 2) 합 창

2007년 합창공연은 총 55회이다. 독립 제주합창단과 서귀포합창단의 활발한 활동, 탐라합창제 및 탐라전국합창축제 등 많은 합창단의 공연은 2007년도 성악부문 공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장로합창단과 제주YMCA유스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8회 탐라합창제가 5월 15~16일 도 문예회관에서 일반부 8개팀, 학생부 14개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탐라전국합창축제는 7회째로 인천 서구립여성합창단 등 12개팀이 경합을 벌이는 합창경연대회를 비롯해 창작합창 위촉곡 공연, 창작가곡 위촉곡 공연, 세미나 등 4개 부분의 행사가 펼쳐졌다. 또, 미국 애리조나 소년합창단과 대만 어린이합창단 등 해외 우수 어린이 합창단 2개팀이 초청돼 도내외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제주시 산지천 광장과 서귀포시 천지연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했다. 한편 문화관광축제와 탐라전국합창축제의 국제화 방안, 국내 가곡운동과 탐라전국합창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표 15〉 독창, 합창 공연 월별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독 창			1	1			1	1		2		3	9
합 창	3	3	1	2	4	4	17		1	4	6	10	55



도내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의 정기연주를 <표 16>에 정리하였다.

<표 16> 합창단 정기 공연 현황

일 자	공 연 명	장 소
1. 18.	월드비전선명회어린이합창단 정기공연	문예회관 대극장
1. 26.	제주시립합창단 신년 음악회	문예회관 대극장
1. 27.	제주첼버코랄 제2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2. 9.	제주콘서트콰이어 제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3. 20.	제주장로합창단, 창단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4. 21.	제주YMCA여성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5. 17.	서귀포시립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회	서귀포 학생문화원 대극장
5. 30.	제주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6. 2.	칸투스합창단 정기공연	문예회관 대극장
6. 3.	제주도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6. 27.	태고가릉빈가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9. 7.	제주극동방송 빛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0. 6.	농아인을 위한 제6회 정기연주회	서귀포 학생문화원 대극장
10. 29.	펠릭스합창단 제4회 정기공연	문예회관 대극장
10. 30.	제주콘서트콰이어 제5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1. 6.	제2회 정기연주회	해비치 리조트
11. 7.	제3회 돌체우먼코러스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1. 10.	제주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1. 12.	제주극동방송 전속어린이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1. 28.	제주YMCA유스합창단 창단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2. 6.	서귀포시립합창단 제39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2. 7.	제8회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2. 8.	한라소년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2. 29.	대정청소년합창단 제4회 정기공연	대정농협 대강당

### 3) 기타 성악 공연

독창회와 합창단 공연을 제외한 공연으로 제주도성악협회 등 많은 성악가들의 활동으로 11회 공연이 있었다.

〈표 17〉 기타 성악 공연 현황

일 자	공 연 명	장 소
3. 11.	2007년 신인음악회	문예회관 대극장
3. 22.	신춘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김정문화회관
3. 26.	네 명의 성악가와 함께하는 나폴리의 향기	문예회관 대극장
4. 4.	오페라 갈라콘서트	문예회관 대극장
6. 19.	2007 성악협회 갈라콘서트	문예회관 대극장
9. 11.	밀라노와 친구들 세 번째 만남	문예회관 대극장
9. 21.	4인의 음악가와 함께하는 드라마콘서트	문예회관 대극장
10. 4.	이태리 가곡의 밤	제주대학교 법정대 중강당
10. 19.	2007 가곡의 밤	문예회관 대극장
11. 16.	솔렘남성중창단,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한라아트홀 대극장
12. 14.	제주이솔리스트 창단 송년음악회	아름다운교회

## 라. 오페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건의 오페라 공연이 있었다. 그 중 화제를 모은 작품은 「백록담」이었다. 2002년 초연 후 몇 번의 수정을 고치며 제주뿐 아니라 서울과 룩셈부르크 등에서도 공연된 작품이 돌문화공원이라는 장소에서 야외 오페라로 새롭게 꾸며진 것이다. 도립 제주교향악단을 비롯해 제주합창단과 서귀포합창단, 제주춤연구회 등 170여 명이 출연하는 대작이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 초청 공연으로 신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이 있었다. 걸작오페라 「리골레토」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오페라이다. 오리지널 음악은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해석, 영상적 연출로 새롭게 추진하는 신작프로젝트였다.

동굴소리연구회와 제주소리연구소가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제주기 애랑」을 무대에 올렸다. 지난 두 번은 모두 야외무대였지만 2007년도에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 공간으로 옮겼다. 제주민요를 원곡으로 하고 예술감독 현행복이 대본과 음악구성을 맡았던 이 작품은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극적 진행의 개연성에 비추어 일부분의 스토리를 약간씩 첨삭했다. 『배비장전』을 원작으로 하면서도 제주소리의 독특한 가무악극 형식으로 선보임으로써 고전작품의 현대화와 제주문화 자원화에 기여한다는 기획의도가 엿보이는 작품이었다.

〈표 18〉 2007년 오페라 현황

일 자	행 사 명	주최·주관	장 소
6. 9.~6. 10.	오페라 「백록담」	제주시	돌문화공원 야외공연장
7. 28.~7. 29.	신오페라 「리골레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문예회관 대극장
12. 12.	오페라(제주소리가무악극) 「제주기 애랑」	동굴소리연구회	문예회관 대극장

### 마. 기타(종합 공연)

기타(종합 공연)는 기악과 성악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공연이나 여러 악기의 공연, 이벤트성 공연 등 여러 장르가 혼합된 공연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9〉 2007년 기타 공연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횟수	3	4	7	2	7	2	3	25	6	3	9	9	77

자작나무숲 음악회가 일반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로 매달 2회 공연을 하였다. 특히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의 「애랑이보러 읍대가」는 뮤지컬 장르로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도립 예술단의 다양한 공연, 우도 동굴음악회 등 여러 형태의 공연이 선보였다.

## 3. 2007년도 음악행사

### 가. 세미나

2월 22~23일 제주국립박물관에서 2007제주전국합창세미나가 열렸다. 7월 21일 탐라전국합창축제 국제화모색 정책세미나, 8월 17~18일 대정청소년합창단 세미나, 8월 24~25일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세미나가 있었다.

## 나. 콩쿠르

총 7개의 콩쿠르가 열렸는데 탐라전국합창축제와 제주국제관악제의 행사인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20〉 2007년 콩쿠르 현황

일 자	행 사 명	주최·주관	장 소
3. 24.	제주플루트협회 콩쿨	제주플루트협회	문예회관 대극장
5. 29.	제8회 전도중·고등학교 학생음악경연대회	제주도중등음악교과연구회	제주도학생문화원
6. 9.	제12회 탐모라학생 음악콩쿠르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	제주관광대학
6. 16.	제주한라학생음악콩쿠르	아시아일보	한라아트홀 대극장
6. 30.	2007 제주전국학생 음악콩쿨	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예회관 대극장
8. 17.~18.	제6회 전국학생대상 아라음악콩쿠르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제주대학교
10. 27.	해럴드뮤직신문 피아노경연대회	하모니피아노	한라아트홀 대극장

## 다. 마스터클래스

총 5회의 마스터클래스가 있었다.

〈표 21〉 2007년 마스터클래스 현황

일 자	행 사 명	주최·주관	장 소
4. 27.	피아노 임옥빈 마스터클래스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관현악실
5. 29.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문예회관 소극장
10. 16.	벨기에 왕립 음악원 교수 루딕 알버트 초청 마스터클래스	프라임타악기양상블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연습실
11. 28.	함일규 마스터클래스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관현악실
11. 28.	여인호 마스터클래스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관현악실

## 라. 캠프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신포니에타,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의 음악캠프가 있었다.

## 마. 국내외 공연

〈표 22〉는 2007년 국내·외 공연을 표로 정리했다.

〈표22〉 2007년 국내외 공연 현황

일 자	행 사 명	장 소
1. 29.	강혜명 미템클래식페스티벌연주회	프랑스 칸느 미템 아우디토리홀
2. 20.	오능희 갈라콘서트 '디바들과 함께하는 클래식여행' 초청	예술의전당
4. 16.	Concert for Piano ensemble	목원대 리사이틀홀
4. 21.	제주시립교향악단, 2007 교향악축제 참가	예술의전당
6. 8.	피아노 앙상블 교류콘서트	군산대 콘서트홀
7. 7.~7. 18.	서귀포시립관악단, 2007 원주따뚜 따뚜음악편지 초청연주	원주 따뚜 공연장
7. 6.	장호진 독창회	부산 금정문화회관
7. 21.	탐라전국합창축제 국제화 모색 정책 세미나	문예회관 소극장
7. 30.	서귀포시립관악단 대구전국우수관악단초청연주	대구 코오롱야외음악당
8. 12.	소프라노 김정희 독창회	캐나다 워터루대학
9. 22.	전국 음악대학 심포닉밴드 제8회 가을축제 제주대학교윈드심포니 참가	장천아트홀
10. 4.	심희정 양진희 듀오 리사이틀	이원아트홀
10. 14.	제18회 전국 원음 성가합창제	부산 시민회관
10. 21.	소프라노 김정희 독창회	캐나다 워터루 센터
10. 23.	평택 피아노 페스티벌	평택 남부 문예회관
11. 18.	한독수교 125주년 기념 그랜드피아노 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 27.	제주관음합창단 제8회 정기보은강 콘서트 참가 신슈 오오타니파 합창연맹	일본 히가시 혼간지 시청각홀

## 바. 발 매

도립 제주교향악단은 부르크너 제8번교향곡을 CD로, 제5번과 제7번 교향곡은 DVD로 공연실황을 담았다.

## 4. 맺는 말

2007년은 공연예술계 모두의 노력으로 풍성한 한 해였다. 기악 부문과 기타(종합)공연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오페라 부문의 「백록담」은 야외공연으로 선보였다. 제주국제관악제와 탐라전국합창축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자리잡았으며, 찾아가는 음악회의 활성화로 음악공연이 특정 계층이 아닌 대중적으로 저변확대가 이루어졌다.

도립 예술단을 비롯해 전문공연단체 및 음악계 모두가 더욱 노력하고 공연의 내실에 더욱 충실한다면 제주음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글 / 임 대 흥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사무국장)

